MAR 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60 1982년3월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March 1,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대통령 암살모의

마피아와 관련된듯

야노버와 크레거맨은 전과 많아

최중화는 내성적, 제롤은 새 인물

전두환 대통령 암살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합동수사반은 24일 야노버(일명 척)와 제롤을 체포하고 교포 최중화씨와 크레거맨을 수배한데 이어 수명의 용의자를 더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온타리오 지방법원은 체포된 2명을 3월4일다시 같은법정에 출두토록했고 온타리오주 대법원은두 섬인의 보석심사재판을 3월1일과 3월8일로 각각 결정했다.

야노버의 변호사는 엘런·골드, 제롤의 변호사는 멀·레비로 이들두 변호사는 ... 사건담당으로는 관록있는 유명변호사 들이다.

경찰은 암살단의 거사시거와 거사방법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으나 작년 9월 트루도수상이 방한했을때 전대통령을 답례로초청한것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캐나다 외무성이나 수상실의도드(Dodd)공보관은 25일 "전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할 시기등이 정해지지않았으므로 암살 거사 와관련이 없을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이번 수사에서 캐나다 경찰과 한국경찰은 오래동안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 고 강조했다.

보통 척키(Chuck)라 고 불리우는 야노버는 오랫동안 뉴욕계 마피아단과 관련된 캐나다의 조직범죄단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70년대초 토론토에서 마피아가 저지른 것으로 짐작되는 건설업계 연속폭력사건에서도 야노버는 중요인물이었다.

야노버는 당시 증언에서 마피아와의 관련설을 전적으로 부인했고, 77년토론토 경찰은 그를 살인무기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이때 그가 소지한 무기는 영국정보기관이 자체용으로 개발한 암살용 무성저격총이었다. 이총은 흔히 007영화에서 사용되 는 방음장치와 조준경이 달린 작은 총이었다.

그는한때 기관총을 가진적도 있었다. 토론토경찰계에서는 이름난 야노버는미국에서 적발된 도미니크공화국 전복음모사건과 관련, 2월초부터 보석중이었다.

이 사건은 중무장한 캐나다및 미국범죄 단들이카리브 해역의 작은섬나라도미니카를 무장점령한다는 것이었으나 거사직전 발각되어 캐나다에서는 야노버와 토론토 KKK두목 맥·퀴터가 체포됐다.

(본보2월16일자 참조)

또하나의 체포된 공범제롤은 현재까지 토론토에는 알려지지않은 새로운 인물로 그의 주변얘기, 행적 등은 비밀에 싸여있다.

장물소지, 사기등 혐의로 수배중인 크레거맨은 20년을 절도, 강도등혐의로, 감옥을 제집드나들듯한 범죄형이다.

19년전 크레거·맨은 50만달러어치 다이아몬드 밀수혐의로 토론토경찰에 체포됐다. 이때까지 토론토에서는 최대의 다이아몬드밀수사건이었다. 이 다이아몬드중 하나는 영국 욕서의 귀족부인이 저택에서 도난당했던 장물로 판명됐었다.

크레거맨은 말솜씨가 뛰어나 70년대초 250만 달러어치 북미최대의 다이아몬드 밀수사건에 관련 4시간동안 판사, 검사들과 설전을 벌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말로 상대방의 신임을 얻는것이 그의 특기이다.

이들 범인들은 토론토마피아 두목으로 알려진 폴·볼피와도 관계가 깊은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이번사건을 담당한 특별강력수사반은 토론토 연방경찰(RCMP. 던다스×자비스)내에 설치된 수사 기구로 연방경찰(RCMP), 온타리오경찰(OPP), 메트로경찰에서 차출된 20여명의형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주로 조직범죄단에 관한 베테란들이다.

정식명칭은 Combined Forces Special Enforcement Unit. 본부장은 연방경찰의 짐·매킬비나 과장.

샌덜리형사, 록·오크형사 2명은 한국에는 가지 않았으나 유럽, 카리브해안등지로 출장수사를 벌였다.

지난10일 압수된 6만8천달러(미화)의 거사자금은 청부살인 보상비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돈은 이슬링톤1100번지에있는 로얄뱅크 특별안전금고에 숨겨져 있었다.

이돈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최를통해 건네진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대표부가있는 비엔나는 북괴공작원들이 즐겨 암약하는 무대이며 이번사건에는 성명미상 수명의 북괴공작원이 관련됐다.

경찰은 북괴공작원의 행적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인들이 분명히 이사건에 관련됐다"고 시인했다.

최중화씨는 자그마한 체구에 예쁘장한 얼굴을 가진 28살의 보석제조회사 세일즈맨이며 태권도 4 단이다.

미스코리아 캐나다로 선발됐던 부인과 1살된 아기가있고 아버지최홍희씨와는 따로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에 보고된 현주소는 부모와같은 미시사가 1470이다.

평소 온화 순진한 성격을가져 그와가까이 지내온 사람들은 모두"과연그가 그런 엄청난 일에 관계할 수 있었을까"하고 놀라움을금치 못했다.

그와 안면이 있는한 태권도 관계자는"사건이 밝혀지자 우리태권도 사범들은 경악했다. 최의 행동으로 미루어 전혀 짐작이 가는점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혀 그와연락이끊겼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칼리지·오프·아트(OCA)를 졸업, 그래픽·디자인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있는 그의누나는 캐내디언과 결혼해서토론토에서 산다.

COMBINED FORCES
SPECIAL ENFORCEMENT UNIT

◇합동수사반 마크. (왼쪽부터) 주경찰, 토론토경찰, 연방경찰을 상징한다.

◇최중화

◇수년전 다이아몬드 밀수사건에 걸려 범인호송 경찰차에서 내리는 크레거맨.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

북괴공작원 관련확실

거사 방법·시기등은 불분명

★암살음모단 조직★

북한공작원 — 배후조정, 자금공급
↓
최중화 — 중간책, 수배중
↓
행동대원(마피아?)
- 야노버 — 구속
- 제롤 — 구속
- 크레거맨 — 수배

모의시기 : 작년 1월~금년 2월
모의장소 : 토론토, 미시사가, 비엔나등.

5개국 300여선수 겨뤄

제5차 세계 태권도대회

(구아야킬, 에쿠아도르25일=연합)제5차 세계태권도 챔피언쉽이 24일 52개국에서 300여명의 태권도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헝가리와 폴랜드는 이번처음으로 각각 3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10개체급으로 나누어진 이번 대회에서 한국팀은모든 체급을 종전처럼 계속 석권하기 힘들게 되었다. 유럽선수들의 실력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총회는 제6차 챔피언쉽을 내년 덴막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서는 헝가리, 폴랜드, 사이프러스, U.S.A., 버진아일랜드와 일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것을 아울러 결정했다. 이로써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회원국은 107개가 되었다.

한편 한국의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배종호 사무총장은 유임되었다.

담배는 암의 산모

흡연자아내 발병률높아

담배를 피는 사람을 멀리하라.

미국의 외과의 에브레트·쿱씨는 본의 아니게 담배연기를 들여 마시는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쿱박사에 따르면 담배가 비흡연자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으나 일본이나 그리스에서는 흡연자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비흡연자의 아내보다 폐암사망율이 두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통계에 따르면, 흡연자의 아내는 10만명당 15.5명이 폐암으로 죽었고, 비흡연자의 아내는 8.7 명이 죽었다.

지난 25년간 폐암 사망자는 계속 늘었고, 다른 암 사망자는 줄었다. 폐암 증가의 주범은 담배라고 쿱의사는 결론지었다.

캐나다 통계에 의하면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은 금연자의 폐암발병률보다 14배나 높다.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은 하루에 담배를 몇개나 피고, 담배의 휠터 유무에도 달라진다.

여성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은 남성보다 훨씬 낮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금주의 행사 (3월1일~7일)

◇5일(금)하오5시 체육회 이사회
곳 : 크린톤 하우스
◇6일(토)하오6시(체육회)모국동계체전참가선수 해단식
◇6일(토)하오1시(한인회주최)3.1절 기념식
곳 : 토론토한인회관(20 Mobile Dr.)
◇6일(토)하오2시(한인회관관리위 주최)모금추진위원회 결성회
곳 : 토론토한인회관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1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 (2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2.5~13.5%
	특별봉사이율 (SPECIAL SALE)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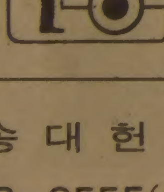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오.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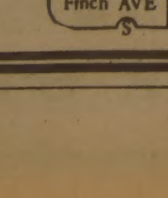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양약과 식이요법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당뇨병의 희소식!!

당뇨病으로 고생하시는 교민들께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금번 폐점에서는 한방의 비약인 漢糖秘方을 수년간 탐문끝에 최초로 독점 입수하는데 성공했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대의학에서는 당뇨病이 불치병으로서 치료약은 없고 병세가 극심하지만 않도록 음식을 가려가며 조절하기위한 약을 매일같이 평생동안을 고생스럽게 투약해야하는 실정입니다.
폐점에서 입수한 漢糖秘方은 끝도없이 복용해야하는 조절약이 아니라 2個月간 복용으로 시원하게 완치되는 치료약이란점에서 남모르는 노력을 수년간 기우린 결과 얼마전 당뇨病으로 여러해동안 고통스러워하시는 교민 한분에게 소량을 우선 공급해 드렸던 바 完治되는 효과를 보았읍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과 완치기쁨을 누리고 계신분과의 치료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도록 해드릴수도 있읍니다.
미도파 백화점 한약부
☎ : 536-1692, 1999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536-1692 (R)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高位會談 3월開催제의

孫통일원장관 聲明, 한국측代表 9名人選 밝혀

「南北對話」 進展조짐

中共, 北韓에 壓力넣은듯…"한국·미국과 관계호전토록"

◇… 한국정부가 남북실무자회담을 3월에 열자고 제의하면서 대표단 명단까지…◇
◇…발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워커주한미대사가『남북한실무자회담분위기는 지…◇
◇…금 익어가고 있다』고 발언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커대사의 이와같은…◇
◇…발언은 남북회담을 위한 모종의 추진작업이 막후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워커 美大使 워싱턴 協議後 歸任길 演說

〈호놀룰루-UPI〉 리처드·L. 워커주한미대사는 23일『남북한관계의 해빙은 매우 조용하게 실무자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현재 이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워커대사는 이날 워싱턴 정부와 업무협의를 마치고 서울로 가던중 이곳에 들러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한국및 미국에 대한 관계를 약간 호전시킬 준비가 돼있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은 최근한국측이 제안한 평화제의에도 점차 부드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면서『그러나 관계호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매우 서서히 진행될 것이며 북한측의 태도전환은 그들의 강력한 우방인 중공의 압력에서 연유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워커대사는「태평양포룸과 태평양·아시아문제위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세계속으로 껍질을 벗고 나서고있다는 것을 감지할수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여지껏 한국의 평화제안에대해 비난만 해왔으나 지난달 전두환대통령의 20개항의 평화제안에 대해서는 그 비난태도를 완화한 것등이 북한측 태도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특히 88년 서울올림픽개최에 충격을 받아 그들의 태도에 유연성을 보여야 할것으로 자각하고 있는것같다

▲워커 주한미대사.

고 말했다.

워커대사는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변함없다고 전제하고『그러나 한국은 하원의 자유와 개방사회및 다양화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인권위반및 탄압에대해서는 미국정부가 동조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본사전화〉 손재식 통일원장관은 25일(서울시간) 오는 3월중에 서울이나 평양또는 판문점에서 남·북한 쌍방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한고위대표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손장관은 이날 상오10시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가진 내외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을 발표 이같이 제의하고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할 민족통일협의회의의 구성과 남북한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 ▲북한측이 지난 2월10일 제의한 회의에 관한 문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사회개방과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반문제등을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손장관은 남북한고위대표회의에 참석할 쌍방대표단은 각기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9명으로 하자고 제의하면서 노태우정무제2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상구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차장을 차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의한 잠정협정을 체결을 제의한바 있다.

한국정부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대표-노태우(정무제2장관) ▲차석대표-김상구(평통사무차장) ▲이영일의원(민정) ▲김문석의원(민한) ▲강지필의원(국민) ▲박찬기의원(민사) ▲이홍구(평통자문위원) ▲김태서(국정자문회의전문위원) ▲송한호(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장).

외국은행 수익신장

계속된 환률인상으로

(서울25일=연합)한국계 은행들은 외국에서 여러가지 애로를 겪고 있으나 외국계 은행 한국지점들은불경기에도 불구, 계속 이익을 올리고 있다.

81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영업하는 37개 외국계 은행들의 81년도 총수익은 433억원($6,100만)으로 80년보다 21% 증가했다.

이 액수는 5개 국내시중은행의 수익금의 절반이상이 된다.

최고수익을 올린 은행은 미국계 시티뱅크로 약70억원이고, 다음이 뱅크·오브·어메리카, 후지은행, 도오교은행의 순이다.

금융계 소식통들은 이와같은 외국은행들의 수익신장은 81년도에도 36%나오른 대미환율 인상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모국하계학교 학생모집

캐나다배당인원 60명

한국정부는 해외교포 학생들에게 발전하는 모국의 참모습과 모국에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민족주체성을 함양하는 취지로 올해도 하계학교 학생을모집한다.

캐나다에서는 60명을 모집하며, 참가자격은 캐나다내에 거주하는 교포자녀로 82년4월30일현재 10, 11, 12학년 재학생으로서 모국에서 실시하는 하계학교에참가한 사실이 없는 학생에 한한다.

지원자는 학부형 연서로 4월25일까지 토론토 총영사관에 지원서를 제출해야한다.

하계학교 교육기간은 7월3일~16일 2주간이며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주관한다.

왕복 항공료와 1인당 미화60달러의 교육비는 참가자가 부담하며, 체재비에한해서 정부가 부담한다.

토론토총영사관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Consulate General of R.O.K #700, 439 University Av. Toronto, Ont. M5G 1Y8

교민동정

◆이안심(Annie's Beauty Care 센터 경영)=지난 2월 미용학교를 졸업, 서구식 최고급 시설로 미용센터를 3월2일 OPEN 한다. 주로 얼굴화장법, 얼굴 맛사지, 피부 보호, 매니큐어 칠하는 방법등 다양한 종목으로 교민에게 봉사한다고, 개업기념 특별 할인봉사를 할 것이라고. 위치: 영×휜치. ☎ : 223-7884.

역사적 골 신기록!

하키왕 웨인·그레츠키

(버팔로)하키의 슈퍼스타 웨인·그레츠키는 금년시즌 77번째, 78번째 79번째 골을 기록, NHL역사상 최고의 골기록을 연달아 세우고 그의 팀 에드몬튼·오일러스가 버팔로·세이버를 6:3으로 누르는데 공헌을 했다

한 시즌 76골의 종전기록을 보유한 피·에스포지토가 주시하는 가운데, 24일 경기에서 그레츠키는 3피어리드 13분만에 신기록의 골인 동시에 이날의 결승골을 터뜨렸다 그는 이날 77번째 골 이후 연달아 2골을 더 넣었다

그레츠키는 기록골을 터뜨릴 때까지 7번이나 슛을 날렸으나 버팔로 에드워드 골리의 선방으로 무위로돌아갔다. 그레츠키가 골을 성공시키자, 오일러스의전 선수는 링크로 뛰어나가그레츠키를 얼싸안았다

종전까지의 기록보유자인 에스포지토는 링크로 뛰쳐나가 역사적 골을 기록한 퍽을 그레츠키에게 전했다

그레츠키는 게임후 레건대투닝으로 부터 축하전화를 받았다.

에스포지토는 71년~72년에 보스톤팀으로 출전, 78게임을 뛰어 76골을 기록했으나 그레츠키는 63번째 게임에서 76골을 기록하고, 64번째 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순간, 그레츠키는 24일 버팔로에서 77번째 골을 기록, 에스포지토의 76골을 깨고 신기록을 세웠다. 이날 그레츠키는 2골을 더 기록, NHL 한 시즌 79골의 기록을 세우고 자기팀 에드몬튼이 버팔로를 6:3으로 물리치는 데 공헌했다. 사진에 보이는 골리는 버팔로의 돈·에드워드

뉴-서울

밤안개의 주인공 현미

기간 : 2월28일(일요일)~3월6일(토요일) 까지

영업시간 : 오후 8 시~새벽 1 시 일요일 오후8 시~오후 11시

교민 여러분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저희 뉴-서울은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고, 절절한 향수를 달래 드리기 위해 모국의 유명가수 "밤안개"의 현미양과 양철군의 우정출연으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한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와 코메디의 양철

529 BLOOR ST. W. 533-1500

〈수상〉

눈오는 날에 한국인을 생각한다 <3>

김 삼 우(선련사 주지)

자기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자신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공간을 느낀다. 이 공간은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해방감이다. 한국사람이 이러한 해방감을 느낄 때 내놓는 것이 「신명」이다. 신명은 한국인들이 자기를 잊어버린. 그리하여 가장 자기다운 생활 가운데서 쏟아내는 여유와 멋이다. 그것은 핫바지처럼 헐렁하고 능선을 닮은 기왓골처럼유연하고, 범종소리처럼 여운을 남긴다. 한국인이 느끼는 자연과의 일체감이다. 허공과 같은 빈 마음이 느끼는 자타일여(自他一如)의 경지인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인은 다듬지 않아도 운치를 느끼고, 인심이 후하고 푸짐하여 덤으로사는 인생까지도 있는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생활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해한 시간은 자연과 함께 느끼는 사시절의 변화와 그 계절 감각에서 오는 세월이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공간에 함몰되어있었다. 한국인의 전통예술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인은 시간예술보다 공간예술을 더잘 이해한 것같다. 시간예술이라고 해도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술이 아니라.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예술이었다. 한국인의 춤과 노래를 들어보면 신들린 사람의 몸짓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들린 사람은자기를 잊어버리고, 이미 떠난 사람이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떠난 사람은 시간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공간)속에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춤과 노래가 때로 슬픈 곡조를 띠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이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눈물과 애착 때문이다. 영원(공간)으로 향한 안타까운 몸짓이 주춤거리고 있는것이다 시간이 다해 버린 영원은 허공과 같고. 허공은 자기를 잊어버린 빈 마음과 같은 것이다. 자기를 잊어버린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나는 한국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활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사람은 질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멋을 알기 때문이다.그들은 문명보다는 오히려자연에 가까운 편이다. 그래서 시켜서 하라고 하면 잘하지 않는다. 자발적 으로 마음이 내켜야 한다. 한국사람이 단합이 잘 안되고 화합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보지 않으면 안된다. 대신 그들은 개성이 강해서 혼자서 하는 일은 신이 나서 잘해낸다. 멋이 있기때문이다.

멋은 한국사람이 현세적인 생활가운데서 아름다움과 조화를 추구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멋은 그 어원인 「맛」에서 알 수 있듯이 감각적인 향기와 풍미를 안고 있다.그것은 한국인의 마음이 서정적이고 감각적으로 흐르고 있기때문이다.

멋은 일반적으로 개성을 아름답게 살리는곳에서 찾을 수 있으나, 약간 빗나가고 좀 어긋나고 어리숙하며 어딘지 덜 되고 정확하지 못한 곳에 그 한국적 특징이 있다. 한국인의 민예품을 보면 이런 점이 잘 드러나 있다.한국백성들의 미학이 거기에 서리어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개성을 살려 멋을 찾으려고 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반면, 멋대가리가 없고 신이 나지 않는 곳에 억지로 일을 시키면 오히려 심술이나 앙탈을 부리는 것이 또한 한국사람 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간적이고 멋을 아는 한국사람에게 현대적인 시간관념이 없다는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루 스물네시간의 기계적이고 서구적인 시간관념을 그들은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은 지금 공업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있고, 시간과의 경쟁을 통해여 세계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토론토의 우리 교민들만 보아도 지금 시간을 다투어 돈을 벌고 있다.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의 생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서양사람보다 더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는 이런 한국인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계 속)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곧 약혼식을 올릴것으로 알려진 캐롤라인공주와 로베르티노·로셀리니.

모나코 캐롤라인公主 곧 結婚
잉그리드 버그만 아들이 求婚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와 배우 잉그리드·버그만의 아들 로베르티노·로셀리니가 결혼할것이며, 그들의 약혼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

캐롤라인은 얼마전 전 남편인 필립·주노와 다시 교제를 시작, 이에 놀란 로셀리니가 구혼을 하고, 역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그레이스왕비가 이들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한다.

그레이스왕비는 또 로셀리니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오랜 친구인 잉그리드·버그만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전에 결혼식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잘못하면, 캐롤라인이 26살이 되어서야 첫아기를 갖게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이같은 결정을 재촉한듯.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⑬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보좌신부의 첫 시련

벨소리를 듣고 방문을열고 나서는 험상궂게 생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나이에게 나는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했다. 그때 그는 하오3시쯤 인데도 파자마 바람으로 있었으며 수염을 언제 깎았는지 얼굴 전면에 고슴도치같은털이 삐죽삐죽 나있었다. 그는 나를 한참동안 사나운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내귀를 의심할 정도의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야, 이 까마귀새끼야. 무슨 일로 남의 낮잠을 망쳐놔? 버릇 없는 놈같으니… 썩 꺼져 빨리!"

그는 악수하려 내민 오른손을 주먹으로 후려치며 나를 다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나는 서너발 뒷걸음으로 물러나 우선 그와의 거리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내 방문의 뜻을 알리려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무슈 아스랑.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같읍니다. 나는 얼마전에 생 루이 드 프랑스 성당에 보좌신부로 부임한 태오 신부나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있는 이지역의 사목을 담당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이 지역의 담당신부로서 당신 가정을 방문하러온것 뿐입니다."

"야. 이 중국놈아. 너와내가 무슨관계가 있단말이냐? 네가 보좌신부든 담당신부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말이야! 시끄럽게 지저귀지 말고 어서빨랑이 자리에서 꺼져버렸!"

그리고 그는 문밖 땅바닥에 가래침을 콱 뱉더 니 방문을 요란스럽게 닫아버렸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자기를 찾아온신부에게 이러한 모욕적인행동을 할수 있단말인가. 나는 한참동안 그자리에 못박힌듯 멍하니 서있었다.

할수없이 성당으로 되돌아오는 내마음은 침울하기 짝이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어떻게 사목활동을 해낼수 있을까 걱정되는 한편겁도났다.

"까마귀"라는 모욕적인 말! 프랑스계통의 사람들은 신부보고 까마귀라고 부르기도 한다. 검은 옷차림에 종교와 도덕을 빙자하여 시끄럽게 말한다는뜻에서 신부들을 까마귀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반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그러나 하필이면 마음먹고 찾아간 첫 방문객인 나에게 이러한 불경스러운말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중국놈"이란 경멸의말! 내가 그때까지살아온 지난 7년간의 해외생활을통해 나는별로 인종차별을 못느끼며 살아왔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하잘것없는 한 인간으로부터 내가 동양인이라고 무시를당하다니… 생각하면 분했다. 당장 되돌아가 그의면상을 주먹으로 후려치고싶은 충동이 온몸을 흥분시켰으나 그럴수도 없는 내 입장이었다.

그날 성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타고 마냥돌아다니다가 저녁식사 시간에 사제관에 돌아왔다.

저녁식사시간에 나는별로 말하지 않았다. 우울한 표정으로 식사를 드는둥마는둥 그저 식탁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기이에본당신부가 나를자기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꼬냑한잔 권하며 내표정에서 뭔가를 찾으려는듯 나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분이었다. 보좌신부들의 일거일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버이처럼 자상하게 도와주는 분이었다. 저녁식탁에서도 말없이 앉아있던 나에게 여러번 시선을 보내며 내 동정을 살피던 그러한 분이었다. 잠시의 침묵후 그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태오 신부, 무슨 일이 있었소? 혹시 보좌신부들 중 어느 누구가 당신의 마음을 상해주지나 않았소?"

"아닙니다. 본당신부님."

그분이 생각하고있는 것과 그날 내가 당한 사건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기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어버이같은 그분의 심정앞에 마음이 짜릿하도록 고마움을 느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소? 당신의 우울한 표정이 도시 걱정이 되는군요. 평소에 명랑한 당신이었기에 더욱 염려가 되는군요."

"본당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읍니다. 꿈속엔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인 것이었읍니다."

나는 [illegible] 신 다음 그분에게 무슈 아스랑과의 있었던 사건을 자세하게 말씀드렸다. 말하면서 나는 점점 흥분되었으나 그분은 반대로 얼굴표정이 밝아지더니 나중에는 입가에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나는 그분의 그러한 표정에 다소 불쾌감마저 느꼈다. 내가 말을 끝내자, 그분은 꼬냑 한잔을 더 권하며 농담조로 내게 말했다.

"태오 신부, 과연 당신다운 신부로서의 첫 경험을 했군요."

"본당신부님, 농담도 좀 심한 것같읍니다. 그것은 내가 마치 겪어야만 되는 일처럼 여기시니 말입니다"

나는 항의조로 그분의말을 이어받았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a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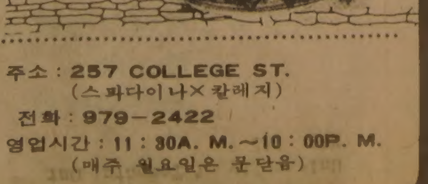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퀸)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BABS
Business Accounting & Book keeping Services
*Business & Individual Tax Returns
*Year—Round Tax Accoun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Available at H & R BLOCK Tax Office
(Rexdale Plaza 의 Eaton's내
Wen. & Fri. Eve. Only 6 : 00~9 : 30
Location : East of Islington and North of401)
DAVID H. KIM (김 희 체)
ACCOUNTANT—LIFTOW LTD.
C.G.A. 4TH YR STUDENT MEMBER
(Co.) 677—3270 EXT. 37
(RES.)742—9514

京 華 樓
(경 화 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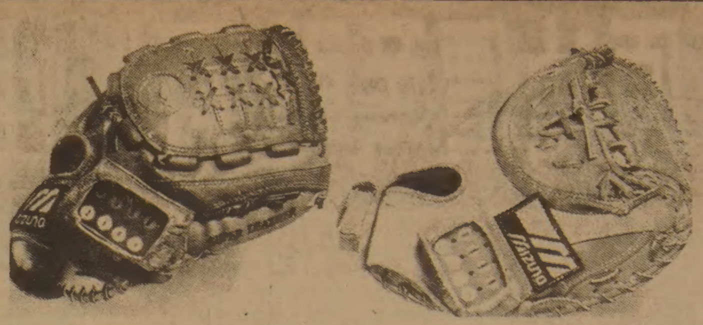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사진으로 본 오늘의 뉴스

◆팬케익 경주 우승자—23일 영국서 열린 팬케익 경주 우승자 로즈메리·루드케이트가 기술을 시범하고 있다. 1445년 시작된 이 경주는 프라이팬에 팬케익을 담아 뒤집으면서 동시에 달리기. 3연승 챔피언 루드게이트(24)는 꾸불꾸불한 4백15야드코스를 65.5초에 달렸다. 〈올니, 영국-

◆솔리대리티 동조하는 에펠탑?—17일 아침 에펠탑2층에서는 솔리대리티의 사인이 그려진 50미터길이의 휘장기가 걸려어 이에, 이 깃발은 솔리대리티에 동조하는 한 프랑스인이 걸은것으로, 1시간뒤 경찰에 의해 거두어졌다. 〈파리- 〉



◆전자글로브—장갑끝에 붙은 전자장치를 이용, 피처에게 시그널을 보낼수 있게 고안된 캐처글로브. 이번시즌 대학야구시합에서부터 테스트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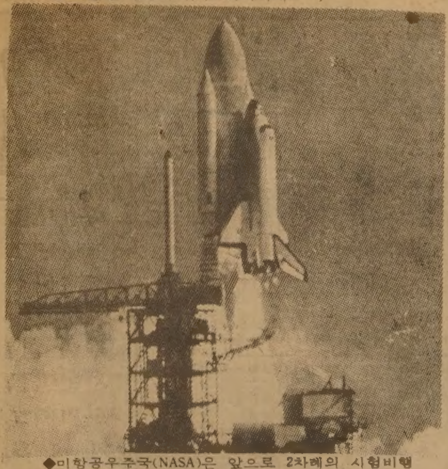
◆폴랜드의 장터—바르샤바의 한 노파가 그녀의 파일스탠드위에 놓인 절롱중 하나를 맛보며, 아주 맛있다는 표정을 짓고있다. 이 사진은 폴랜드정부의 검열을 받은 것이다. 〈바르샤바- 〉

◆스턴트맨의 묘기—스턴트맨인 마이크·러나드가 탱크를 넘어뛰는 순간 수류탄을 던지고, 탱크가 폭발할때는 이미 안전거리로 떨어져내리는 묘기를 보여주고있다. 이 묘기는 모하비사막에서 행해졌는데, 새로운 영화「메가포스」의 한장면으로 주목될것. 세계최고의 엘리트 전투부대이야기를 그린 이영화는 할·니드햄 감독작품으로 오는 여름 개봉될 예정이다. 〈모하비사막- 〉

◆카메라 뒤의 지나—왕년의 육체파여배우 지나·롤로브리지다가 자신의 카메라뒤에서 포즈를 취했다. 지나·롤로브리지다도 「매력 스타의 밤」에 출연했다. 〈뉴욕- 〉

◆내 새차예요—여배우 브룩·쉴즈양이 크라이슬러회사로부터 선물받은 새차위에서 즐거운 표정. 크라이슬러서 71년이후 처음 선보인 컨버터블로 82년도 르바론이다. 〈뉴욕- 〉

◆봄을 부르는 굴뚝청소부—실크햇을 쓰고 지붕위에 높히선 굴뚝청소부의 실루엣은 옛부터 서양에서 봄을 알리는 로맨틱한 정경. 아주 어렸을때 유럽여행중 굴뚝청소부가 되기로 결심했었다는 왈드마·닐슨씨는 봄마다 지붕위에 지붕으로 건너다니는 베테란이다 〈푸엘럽,



◆미항공우주국(NASA)은 앞으로 2차례의 시험비행을 더 갖고, 콜럼비아호의 실용비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은 콜럼비아 1호 발사광경.

남녀우주인이 탑승할수있는데 첫 비행에는 3명만 탑승하고 인공위성을 운반하게 된다.

◆단호한 결심—3살짜리 사라·브라이트양이 「바이얼린의 대가」가 되겠다는 단호한 결심의 표정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다. 사라양은 켄트대학이 운영하는 스즈끼식·바이얼린 강습에 참가중이다. 〈캔톤, 오하이오주- 〉

◆가장 추한 표정—내셔널인콰이어러잡지가 주최한 「추한 얼굴」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illegible]·인터스여인(37)의 표정. 본 얼굴과는 엄청나게 다른 이표정은 오랫동안 [illegible] 연습한 결과라고. 〈카펜터빌, 일리노이주- 〉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특별출연

기 간 : 2월1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부터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망 향
기적소리만
향 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밴 드 :
목, 금, 토, 일 저녁8시30분～2시까지
권순근과 그의 악단

5 BETHRIDGE RD.
742— 1618

原油價폭락 可能性높아

OPEC 27일 緊急회의 소집

減産·價格引下중 擇一할듯

專門家들 "20弗線까지 내린다"

【런던22日AP=聯】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세계석유공급과잉으로 인한 유가인하위협을 논하기위해 27일 빈 또는 두바이에서 긴급석유상회담을 개최할것으로 보인다고 아랍 석유소식통들이 22일 전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알·바얀紙는 現OPEC의장인 마네하·알·오타이바 아랍에미리트연합 석유광물자원상이 OPEC사무국에 이번 회담을 실현시키기위해 사우디아라비아등 13개 회원국과 긴급접촉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는데 소식통들은 OPEC사무국이 23일중으로 OPEC긴급석유상회담 개최를 공표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리AP=聯】일부西方전문가들이 전망하는바와같이 現석유가하락추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운영이 크게변경될지 모른다.

유가폭락이 세계금융시장에 긴장을 야기시키고 금리인상을 가져올 경우 東歐와 南美의 채무국들이 난관에봉착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들은 또 유가폭락으로인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재원마련에 차질이 있을것이며 페르시아灣의 개발사업에 대한 서방의 참여필요성이감소되어 이지역에서의 서방기업의 계약고가 줄어들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원유가의 점진적인상은 1970년부터 시작됐다. 中東戰이 발생한 73년에는 4배로 경충 뛰었으며 이란이 수출을 중지한 79년에도 유가는 2배 올랐다.

그러나 최근수개월간은 가격이 꾸준히 내렸으며 美경제학자 폴·벌리저씨는 유가가 곧 배럴당 14달러내려 20달러가될 가능성이 있다고말했다.

美휘발유값도 下落

【로스앤젤레스20日=聯】세계의 석유공급과잉상태는 적어도 금년말까지 지속될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즈紙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석유업계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석유공급과잉으로 유가인하및 할인의경향이 산유국들사이에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고 밝히고 휘발유를 비롯한 다른 油類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석유업계전문가들은 미국의 휘발유가격이 최근 갤런당 2센트인하된데 뒤이어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2~3센트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이신문은 말했다.

이란, 2弗引下

對韓 供給價格을 통보

이란 國營石油會社(NIOC)는 지난21일자로 對韓原油供給價格을 배럴당 2달러 인하적용한다고 거래선인 雙龍精油에 통보해왔다. 이란국영석유회사는 올들어 4차례에걸쳐 6달러를내렸다.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국내도입원유의 8%를 도입하고있는데 이번에 배럴당2달러가내려 1·43%의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동자부는 작년11월29일 油價인상후 22일현재 환율이 달러당 6백90원에서 7백12원30전으로 2·8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있어 이번 이란産원유가격의 인하로 1·43%의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43%의 인상요인을 안고있다고 밝혔다.

사우디減産 가능성
6百萬배럴 線으로

【東京22日AP=聯】세계최대 석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하락을 막기위해 곧 산유량을 대폭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日本 에너지경제연구소가 22일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국제석유수급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사우디가 재정상태를 위태롭게 만들지않고도 산유량을 현재의 하루8백50만배럴에서 약 6백만배럴정도로 대폭 감축할수있다고 말했다.

民韓, 情報公開法제정 추진

民韓黨은 오는 26일개최되는 제110회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이나 국회전문위원이 정부측에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응하도록하는 情報公開法(假稱)을 비롯, 勞使문제를專擔할 勞動특별실치법, 糧穀收買값결정전에 국회동의를 얻도록하는 양곡관리법 개정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民韓黨원내총무실이 마련, 23일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한 國政심의참고자료에의하면 民韓黨은 이번국회에서 정치의 신법의폐지및 정치피규제자의 解禁을 거듭 촉구하고 5·17전후에 처벌된 정치범에 대한 특별赦免권의와함께 오는83년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토록 주장할 계획이다.

民韓黨은 또 민방위연령을 45세로 환원할것을 요구하고 올림픽준비사업및 도시정비 추진사업을 위해 再開發公社를 설치토록하고 高校平準化의 보완책으로 英才교육실시 및 大入제도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한편 교수추천제의재고 또는 부작용방지책의 수립및 졸업정원제에서 탈락하는 대학생들의 再·三修허용 방안을 촉구키로했다.

이밖에 民韓黨총무실이 제시한 各常任委別 주요활동지침은 다음과같다.

◇運營委=▲국회법개정▲각당 대표의 기조연설등 주요문제에대한 대정부 질문등 의 국회활동 TV放映▲의원 겸직에따른 부작용보완책 마련

◇法司委=▲뉴저팬호텔화재사건과 관련된 在外국민의 보호책 ▲법관및 검사의 充員策 ▲보호감찰제도의 임용시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外務委=▲통일·안보등 주요국가시책에대한 야당과의 사전협의 제도화 ▲韓日經協 60억달러의 추진현황 ▲南北韓 정상회담의 구체방안

◇內務委=▲관료행정체제의 시정 ▲未해결강력범사건 추궁 ▲새마을國庫정비 ▲漢江水路정비의 문제점

◇財務·經科·商工委=▲公共서비스요금인상 ▲가격표시제 ▲민간주도경제의 구체계획 ▲공정거래법 운영상의 문제점 ▲換率정책의 再考▲금융자율화와 정책금융▲租稅제도의 합리화 ▲油價정책의 합리화

안개자욱 출근길 車輛들은 엉금엉금

◇봄안개가 자욱하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포근한 봄날씨속에 23일 아침 서울지방은 시정 2백m의 짙은 안개가 끼어 출근길 차량들이 곤욕을 치렀다. 안개공항 金浦에서도 아침 한때 비행기 이·착륙이어려워 국제선 도착편들이 金海공항으로 돌아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중앙기상대는 24일 아침에도 중부·호남지방에 아침한때 짙은 안개가 끼겠다고 예보했다. 【23일상오9시 汝矣島에서】

임시國會 召集공고

蔡汶植국회의장 직무대리는 23일상오10시 제110회 임시국회를 오는 26일 하오2시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오는 3월13일까지 16일간의 會期(실질회기12일)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26일 개회식에 이어 劉彰順국무총리로부터 國政보고를 들으며 3월2일부터 6일까지 3黨 대표질문과 ▲정치·외교·안보▲사회▲경제등 3개 議題별로 對정부질문을 벌이게된다.

民願창구 不時점검 紀綱확립

監査院 업무報告

附價稅등 非理많은 稅目개선

◇全斗煥 대통령이 李漢基감사원장으로 부터올해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監査院은 올해 중점감사분야를 淨化定着과 예산절감, 주요시책의 효율적추진, 국민便益의증진으로 설정하고 이를위해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이 23일 全斗煥대통령에게보고한 올해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특히 淨化定着을위해 機動감찰등 職務감찰을 강화, 民願 창구를 불시에 점검하고 官紀숙정기준을 연구 시행함으로써 公職者들의 紀綱을 확정키로 했다.

또 각종 협회와조합, 稅務士, 關稅士, 건축사등의 非理를 척결하고 非예산사업, 혁신적이며 과분한 행사, 주민및 有關기관에대한 부당한 부담, 폐습적인 기관운영비를 뿌리뽑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전국의中都市5개도시를선정, 상수도, 청소, 도시계획, 零細民구호, 民願등 類似한업무를추려 비교분석해 그결과를 각자치단체에 제시함으로써 도시행정의 합리적발전을 촉구하고 균형적인발전을 유도하는 도시행정의 비교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 有關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를 점검해 체육진흥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올림픽관련업체에대한 금융, 稅制지원실태를 점검, 민간체육시설과 체육용품개발을 적극지원하며 既存경기장, 체육시설활용을 極大化해 체육의 생활화, 체육인구의 底邊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벌일방침이다.

감사원은 零細학교의 統·廢合방안을 강구하고 학교별교원배정기준의 합리화방안등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교육시설의 효율적운용을 촉구키로했다.

감사원은 또고질적인 稅務非理를 없애기위해 附價稅등 非理가많은 稅目의 문제점을 추려 이를개선토록하고 徵稅費의 현실화와 법령및제도상의 미비점보완을통한 稅務행정집행의 객관적인기준을 마련할수있는 방향에서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港灣, 댐, 지하철, 發電, 送配電시설등 大型공사의 사업계획부터 설계, 施工과정등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기술人力 不適正기관의 시공실태를 지도, 大型공사의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감사의중점을 두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올해감사목표달성을위해 예산節減 年間목표액을 설정하는 目標管理制를 도입하고 전문감사지원반편성과 비교監査技法을 개발활용키로 했다.

全대통령指示

"監査 質높여 內實化"

職員모두가 먼저 청렴·결백해야"

全斗煥 대통령은 23일 상오 監査院과 援護處로부터 각각 올해주요 업무계획을보고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李漢基감사원장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감사대상을 量的으로 너무많이 설정하는것보다 重點감사를 실시해 감사의質을 內實化해야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가내건 각종정책을 감사관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정부정책이 올바른 방향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의 역점을 두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不正과 非理척결에있어 감사원의 역할이 막중한만큼 감사원 직원모두가 청렴·결백함으로써 被監査者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수 있도록 公明正大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원과 원호처보고자리에는 劉彰順국무총리와 孫守益총리 行調실장이 배석했다.

저소득 援護세대에 매달 救護手當지급

援護處 보고

원호처는 올해에 전국 6천여가구의 저소득 원호대상세대에 月2만4천~6만8천원씩의 구호수당을 지급, 최저생계비 미달자를 없애도록하고 질병등으로 급한돈이 필요한원호대상자에는 50만원까지를 융자해주는 생활안정지원금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원호처는 또 숨은독립유공자를 계속 발굴, 올 광복절에 5백여명의 유공자를 추가포상할 방침이며 1895년 閔妃弑害이후 光復때까지 독립운동을한 유공자전원에 대해 개인별공훈카드를만들어 이를 역사자료로 활용하도록했다.

이밖에 원호처는 원호대상자의 취업알선은 지금까지의 고용명령취업을 지양, 올해부터는 자력취업을 권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의 전환은 현재 취업 희망자 가운데는 과거처럼 상이군경이나 미망인들 본인은 노령·은퇴등의 이유로 극히 적은 반면 교육보호시혜로 고등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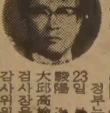
세송 4월訪韓

【파리23日=金翔佑특파원】盧信永외무장관은 22일 하오7시30분(한국시간 23일 상오3시30분) 클로드·세이송 프랑스외상과 만찬을 겸한 회담을 열고 韓佛간의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2시간30분간 계속된 이날 회담에서 盧장관은 한반도정세를 설명하면서 남북한교차승인원칙고수에 프랑스가 앞장설것을 강조했고, 이에대해 세이송외상은 『한국의 입장을 잘알고 있으며 프랑스의 남북한에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언했다.

세이송외상은 또한 盧장관의 방한초청을수락, 금년중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이송외상은 오는 4월 미테랑대통령의 일본방문때 수행해서 방한할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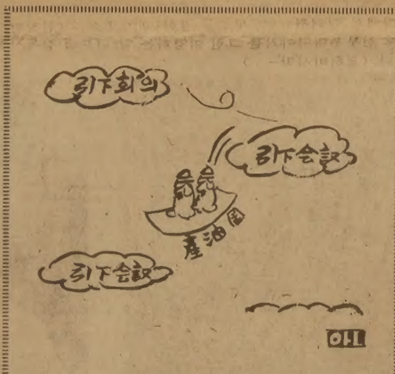
監査위원 朴駿陽씨



정부는 23일 駿陽 大邱高檢검사장을 감사위원(次官級)에 임명, 발령했다.

◇朴위원略歷=▲釜山출신 52세 ▲서울大법대卒 ▲全州·大田지검부장검사 ▲서울지검차장검사 ▲春川·大田지검검사장 ▲大檢공안부장 ▲大邱高檢검사장

社会漫評



地平線

겁나는 얘기한토막. 미국에서 올해 암으로 희생될 사람이 43만명으로 예상되는데 그가운데 13만명은 흡연과 관계가 깊다는얘기다.

▼톰·소여의모험을 쓴 마크·트웨인은 담배잘 피우기로 유명하다. 그가 살아나 이번에 발표된 미공중위생국의 암보고서 내용을 들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백1번째로 담배를 또 끊었을것이 틀림없다. 시거애호가인 그는 『금연처럼 쉬운것은 없다. 나는 백번이나 끊었으니…』하면서 [illegible] 쓰니 말이다. 윈스턴·처칠도 니코틴 중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하루에 시거를 15개로 제한했다. 젊었을 때 니코틴女神에 홀려 더 많이 시거할당을 받았으면 처칠의 성격이 보다 부드러워져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농담마저 있다.

▼미공중위생국의 보고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폐암으로인한 치사율을 85% 줄일 수 있으나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미국의 여성암의 주종이 폐암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선 담배 많이피우는 사람이 남자가아니라 여자로 되어가는 형편이기때문이다. 또 이 보고서는 WHO에이어 담배피우는 사람의 담배연기로 담배안피우는 사람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밝히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호에 금연칸이 마련될정도로 담배안피우는 사람이 늘고있다.

▼외국에서 실험한바에 따르면 담배피우는 사람과 같은 방안에 있을때 담배안피우는 사람도 최저혈압이 오르고 발끝의 피부체온이내려갈 정도의 피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한개비가 담배안피우는사람의 公害源이 되고있는 사실을 고름만큼도생각지 않는것이 우리나라 애연가들이지만 담배많이 피우는 사람옆에있으면 기침이나고 눈앞이 멍멍해지며 浮遊粉塵에 폐가나빠질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것을 애연가들은 알아야 할때가 된것같다.

▼금연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하는모양이다. 올해 고교를나온 젊은이들이 피울줄도 모르는 담배를 억지로 물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보는데 뭣인가 잘못알고있는것이 분명하다. 고교재학중에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고만 배우다가 고교를 졸업하면 금방어른이 된것으로 착각, 담배부터 배우니 바로 고쳐잡아야 할것의 하나다. 담배를 피우면 폐에 나쁜것은 물론 심장의 혈관을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알려줘야 되는것이다.

▼담배는 신장및 췌장암까지 유발한다는것이 미국보건국 보고서의 결론이니만큼 전매청 수입은 줄겠지만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다는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하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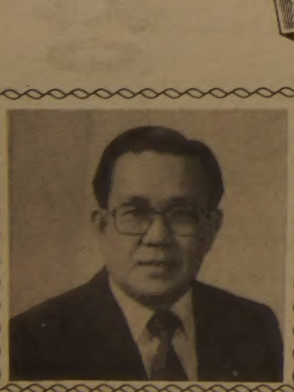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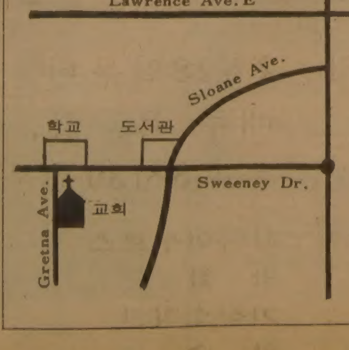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심령대부흥회



조천일 목사

강 사 : 조천일 목사
(나성 필라델비아장로교회 교회담임)
시 일 : 1982년3월18일(목)~21일(일) 매일저녁7시
장 소 : 토론토 필라델비아장로교회 장로교회
(7 Gretna Ave.)
교통편 : Woodbine정류장에서 91, 91-C번버스를이 용하시면 교회앞에서 내리심
문의및연락 : 김경진 목사(281-5706)
고형석 장로(493-8782)



우간다首都서 銃擊戰

어제 새벽、重砲-로키트砲 動員

2시간여 軍幕舍포격

상점撤市… 게릴라所行說

【나이로비23日韓聯=聯合】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23일새벽 중포와 로키트포가 동원된 대포격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포격사건의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않았으나 나이로비에서 전화로접촉된 주민들에 의하면 포격은 새벽2시45분 (한국시간 상오8시45분)께 시작됐으며 이는79년 독재자 이디·아민이 축출됐을때 벌어졌던 총격전이후 가장 격렬한 것이었다.

포격은 군사령부부근의 군막사 2개에 집중되었는데 2시간동안에 1백발가량의 중포가·루비나막사부근에 발사됐으며 로키트포의·불꽃이 밤하늘에 번쩍이고 격렬한 자동소총 총격이 있었다고 이주민은 말했다.

포격은 상오8시 (한국시간 하오2시) 까지 계속되었으며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고 주민들은 집안에있다고 이주민은 전했다.

이사건에대해 정부측의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있다.

우간다의 밀튼·오보테정권은 현재 무력정부전복을 노리는 3개단체의 게릴라활동에 직면하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수도 캄팔라에서 국제공항이있는 엔테베에 이르는 주요도로가 폐쇄되었다.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일군의 게릴라가 엔테베로이르는 연도에서 정부군에 투항했다고한다.

◇레이건演說에 식민지복장한 의장병들 로널드·레이건 美대통령이 22일 조지·워싱턴 초대 대통령탄생2백50주년을맞아 美버지니아州마운트버넌의 워싱턴 대통령 고향을 방문, 식민지시대 복장을한 의장병을 배경으로 연설하고있다. 【마운트버넌 (美버지니아州) 22日AP電送=聯合】

蘇中將 아프간서 死亡

타고가던 헬리콥터 砲擊에추락

【뉴델리23日AP聯合=聯合】소련의 P·I 시키드첸코 중장이 지난19일 아프가니스탄동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가던중 로키트를맞고추락, 사망했다고 한서방외교소식통이 23일밝혔다.

아프간수도 카불로부터 들어온 이 보고는 헬리콥터에는 시키드첸코와 2~3명의 다른 소련장교, 아프간인 1명이 타고있었으며 가데즈에서 6㎞떨어진 고스트로 가던중 적어도1발의로키트를맞고추락, 모두사망했다고전했다.

브레즈네프死後에 "蘇팽창政策포기"

【뉴욕22日AP=聯合】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스탈린사상에 젖어있는 그의 동료들이 사망한후에는 소련이 국내개혁에 전념하기위해 현재의 군사적팽창주의정책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레이건 美행정부의 한 고위보좌관인 리처드·파이프스씨가 최근 밝혔다.

국가안보회의의 소련문제 전문가인 그는 美시사주간지 타임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소련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으며『현명하고현실적인 소련민족주의 자들은 소련의對美적대정책과해외에서의대치상황이비생산적인것으로믿고있다』고주장했다.

美、韓國戰 휴전협상失敗때 中共국경까지 진격등 검토

【東京23日=宋孝彬특파원】미국은 6·25동란후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51년당시 휴전에 실패할경우에 대비①유엔군사령관에게 중공국경까지 진격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②일본군대에 대한 조직, 훈련, 장비 강화를 추진을 영국측에 타진했었다고 23일 共同통신이 워싱턴發로 보도했다.

시아누크 支援세력에 中共、步兵무기 提供

【北京23日韓聯=聯合】노로돔·시아누크 前캄보디아 국가원수는 23일 중공이 캄보디아 내에있는 자신의 지지세력에게 보병무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아누크공은 이날 크메르 루지 지도자인 키우·삼판과의 오찬에 앞서 기자들과만난 자리에서 중공이 수일전 캄보디아의 정글에서 베트남군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지지세력3천여명에게 자동소총 바추카포 등의 경무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아누크공과 삼판은 현재 北京에서 캄보디아내 反베트남저항세력들간의 연합을 모색하기위한 회담을 진행중인데 또하나의 반베트남저항세력 지도자인 손·산前캄보디아 수상은 이들이 제안한 3개 저항세력간의 수뇌회담을 거부하고있다.

波共黨 中央委 전체회의 소집

【바르샤바22日韓聯=聯合】폴란드共産黨은 계엄령선포이래 처음으로 24, 25양일간 중앙위전체회의를 소집, 보이체흐·야루젤스키黨제1서기와 국가의 장래와 국가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미칠 중요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르샤바의 정통한 관계소식통들은 공산당중앙위의 이번 특별전체회의가 내달초있을 야루젤스키제1서기와 소련지도자들간의 會談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들은 이번 중앙위전체회의와 蘇·波정상회담이 폴란드지도층의 정치노선을 더욱 선명히 표출시킬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야루젤스키장군은 앞서 黨제1서기직에서 물러나 군통수권만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일부 관측통들에 의해 예견되어왔었으나 그가 내달초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임이 21일 발표됨으로써 지도층의 개편이 아직 임박하지 않았음이 시사되었다.

공산당소식통들은 이번에 소집될 黨중앙위특별전체회의가 ▲당제1서기 야루젤스키장군의 장래 ▲계엄령의 존속기간 ▲자유노조의 앞날등을 논의하면서 계엄선포후 실추된 黨의 영향력을 회복하기위한 방안을 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빅큐브안은 브레즈네프 전통깊은 獨逸의 로제祭에서 수레위에 앉은 蘇聯공산당 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가 폴란드라고표시된 루빅·큐브를안고 거리를 지나가고있다. 【마인츠(西獨) 22日UPI電送=聯合】

外信안테나

◆中共、對臺灣 새 平和공세=中共은 中共에 구금되어있는 國民黨의 민간인및 軍 하급 관리들을 모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공국영TV가 22일 보도했다. 중공국영TV는 前國民黨정부때 郡守나 대령이하의 國民黨당원·정부·軍·비밀기관관리들이 모두 석방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이같은 결정은 현재 北京에서 열리고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토의될예정이라고 밝혔다. 【北京=AP】

◆EEC、貿易規制철폐없을땐 對日報復=歐共市(EEC)는 22일 일본에 대해 유럽상품수입증대를 계속 촉구키로 합의하는 한편 일본이 무역규제철폐를 거부할경우 對日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브뤼셀=AP】

中共、軍部改編도 확대

高位장교 千7백명 退役

【北京22日UPI·AP=聯合】鄧小平이 추진중인 중공의 관료제도개편『革命』이 마침내 군부와 중앙정부로 확대돼 1천7백명의 고위장교들이 이미 퇴역당했으며 중앙정부관리중 20만명이 추방될것으로 22일전해졌다.

中共黨기관지 人民日報는 이날 中共北東軍省瀋陽관구에서 1천3백명이상의 장교가 1년도 못되는 사이에 퇴역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 장교가 군사교육 또는 검사관이 되거나 아니면 다만 쉬기위해 자발적으로『제2線』으로 물러났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홍콩의 親中共계 文匯報는 "南部廣東군관구에 배치돼있던 고위軍장교 4백명이 은퇴했다고 보도했다.

한 西方외교관은 이같은군부정비작업이 매우 빠른속도로 진행중이며 다른군관구에서도 이러한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蘇官吏2명 추방

싱가포르、아세안地域서間諜협의

【싱가포르22日UPI=聯合】싱가포르정부는 22일 아세안 (東南亞國家聯合) 지역을 무대로 간첩망을 구축하려는 싱가포르주재 소련외교관 1명과 해운감독관1명등 2명의 소련관리를 간첩혐의로 강제추방했다.

이로써 지난 12월말께부터 아세안 5개회원국중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등 3개회원국으로부터 도합 7명의 소련관리들이 잇달아 간첩혐의로 축출당했다.

싱가포르정부는 이날 추방된 소련관리의 신원을 駐싱가포르 소련대사관 신문정보과장인 2등서기관 아나톨리·알렉세예비치·라르킨과 싱가포르 半國營 케펠조선소에파견된 해운감독관 알렉산드르·알렉산드로비치·본다렌코라고 밝혔다.

◇「世界서 제일큰女性」의 死亡 지난13일 사망한것으로 전해진 세계에서 가장 키큰 여성이었던 中共의 쩡·진·리안(13)양의 생전의 모습. 2m41㎝의 쩡양의 사인은 당뇨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었으며 5일동안 고열로 시달리다가 사망했다고. 【뉴욕22日AP電送=聯合】

워싱턴인사이드

헤이그-와인버거 暗鬪표면화

【워싱턴23日=曺洋煥특파원】최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백악관참모회의는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위해서라도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외교를 휘둘러야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외교는 대통령、국무장관,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중 어느하나가 외교 고삐를 잡아왔다.

하지만 레이건행정부 13개월에 레이건 대통령 헤이그 국무장관 와인버거국방장관 클라크안보담당보좌관중 어느누구도 미국외교의 키를잡았다고 할수없다.

앨런이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으로 있을때는 헤이그와 앨런간에 마찰이 간단없이일더니 앨런이물러선후 잠재해있던 헤이그와 와인버거간의 세력싸움이 표면에 떠오르고 있다.

이 두실력자의 불화를 이해하지않고서는 미국외교를 대할수없다.

와인버거가 지난주 중동여행을하고 돌아온후 미국신문들은『워싱턴에 두개의 국무성이 필요한가』『분쟁과 표류』『중동정책혼란』등의 표제로 헤이그-와인버거의 불화에 초점을 맞췄다.

對소관계、對서방관계、폴란드사태、중동및 중미문제에 이르기까지 헤이그와 와인버거간에는 의견차이가 있고 불협화음이 새어나온다.

헤이그가 장막속의 국무성참모회의에서『미국은 일관된 방법으로 국방전략을 밀고 나가지 못하고있다…전반적인 전략개념이 없이 미국은 방위에 달러를 부어넣고 있다』등 국방성을 얕잡아보고 비난한말들이 새어나와 헤이그와 와인버거간의 불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헤이그와 와인버거간의 그밖의 중요견해차이를 간추려 본다.

◇헤이그 ◇와인버거

11월 選擧布石 겨냥

앨런 退陣後 노골적

對蘇·西方·波·中東등 의견對立

▲對蘇관계=헤이그는 소련팽창이 견제되어야하나 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헤이그는 가능한 곳에서는 소련과 협상하려고 한다. 와인버거는 소련에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헤이그는 나토우방들의 가스파이프·라인계약에 못마땅해하면서도 미국과 서방간의 단합을 더 중시한다.

▲中美=헤이그는 중미사태에 매우 강경하다. 와인버거는 엘살바도르에 미군이 개입하면『또하나의 베트남』으로 미국반대여론이 비등해지고 이반대여론이 미군파견을 싫어한다는 실제적입장에서 미군개입에 반대한다.

▲對蘇관계=헤이그는 소련이 군축협상을 지연시키기를 원하며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의 소련의 군축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미국군을 증강해야 한다고 본다 …

▲중동=헤이그는 전통적 친이스라엘정책을 유지하며 이스라엘을 미국의 전략적 동맹으로 본다. 와인버거는 아랍측으로 기울어 있다.

헤이그는 이스라엘과 와인버거간의 대립이 점점 더 격화해져서 올해는 와인버거가 중동문제에 더 깊이 개입하려 할것으로 보인다.

헤이그가 아랍보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것은 84년 대통령선거출마에 대비해 미국유태계 언론계에 영향력을 갖는 유태세력을 얻기위한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본다.

현재까지 매파인 와인버거보다 온건한 헤이그노선이 우세해 왔으나 83회계연도 국방예산이 대폭 증대되면서와 인버거의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것같다.

海外토픽

「마노독作戰」시비

★比將校들'造作劇'보도興奮

일부 필리핀軍 장교들은 최근의「마노독」구출작전을 조작극이라고 보도한 美시사주간지 타임등 2개외국잡지와 국내 일간신문 2개지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타임,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등 2개잡지와 말라야 (자유)、위포룸등2개일간신문이 필리핀군의 마노독구출작전을『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연출된조작극』이라고보도、구출작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성실성을 모독되게했다면서 소송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것. 【마닐라=UPI】

落胎시술 百55만件

★美80년、胎兒4명當1명꼴

지난80년 한햇동안 미국내에서는 태아 4명당 1명꼴인 1백55만건의 합법적인 낙태수술이 행해졌다고 가족계획연구기관인 앨런·가트매처연구소의 제7차 연례낙태조사가 21일 밝혔다.

앨런·가트매처연구소는 기관지「가족계획전망」에 실린 이조사보고서에서 80년도의 합법적 낙태건수는 美國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첫해였던 지난73년도의 74만4천건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보고서는 원치않는 임신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여성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임약이나 피임기구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때문에 낙태가 급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피임약의 경우 그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때 약 1천만명의 美여성들이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피임약을 애용했었다. 그러나 지난 75~78년사이에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이 25%이상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감소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뉴욕=UPI】

레이건長女 출마

★共和黨上院의원후보登錄

레이건대통령의 장녀인 모린양(40)은 22일 美上院의원 보궐선거 출마를위해 共和黨후보지명 등록을 마쳤다.

모린양은 등록수속을 마친뒤 기자들에게 자신은 아버지 레이건대통령보다 더 오래 共和黨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는데 모린양의 출마를 승낙하지 않았던 레이건대통령은 民主黨員이었다가 지난 62년 共和黨에 입당했다.

캘리포니아出身 I·S·하야카와상원의원(共)이 갖고있던 상원의원 1석을 위한 보궐선거에는 共和黨에서 모린양을 비롯한 7명의 후보들이 지명경쟁에 나서고있다. 【로스앤젤레스=聯合】

메아리

專門大學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종래의 초급대학과 전문학교가 지녔던 어중간했던 성격이나 구실을 정장보단한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지난 79년도부터 발전했다. 그렇지만 해도 오늘날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교양과 기능을 더불어 갖춘 쓸모있는 중견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설립목적을 두고있어서 장차는 4년제 일반대학 못지않은 교육기관으로 발전할것이라는 큰 기대를 걸게 했었다. 한데 22일 이 문교부장관은 전국의 1백27개 전문대학중 시설이 부실한 전문대는 앞으로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이다.

80년대의 고도산업화에 대응하는 새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처럼 출범했던 전문대가 그런대로 직업대학및 지역사회대학적인 성격을 띠면서 모두발전하길 바랐으나 아마도일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것이 현실인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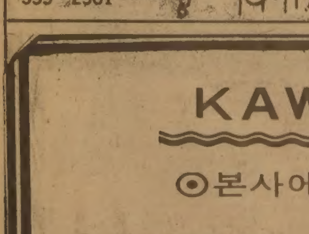
전문대의 활성화는 철저한 산학협동체제의 확립과 졸업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의 뒷받침이 있을때 비로소 가능한것이다.

그밖에도 현행 시설기준령을 재검토해서 실험·실습설비의 충실을 기해야 하고 교수요원의확보와 교수방법의 개발같은 노력의지속을 통하여 교육내용에 비약을 이룩해야 했었다.

더구나 세월이 갈수록 고급두뇌인력의 수요가 급증하는 고도산업사회에서 그중추의 구실을 맡을 실업계전문인력양성기관인 전문대가 급기야는『과감한 정리의 대상』으로까지 부실하기에 이르렀다는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문대가『4년제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시방편』이 아닌바에야, 또 전문대학이 현 시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교육기관인바에야,『단계적으로 정리』하는것을 능사로 삼을것이아니라 되려 정부당국에 의한 집중적인 지원투자로 그성장이 거듭되기를 바라고 싶어진다.

아울러 사회의 일꾼들을 전문대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학생들및 졸업생의진출을 촉진시켜 긍지와 보람을 누리며 공부할수있도록하는 배려가 보태져야하겠다. 발족한지 4년, 이제 걸음마가 고작인 전문대학에다 단번에 너무 많은것을 기대하느니 보다 좀더 보살피고 키워서 먼 훗날을 기하려는 당국의 정책적 인내가 있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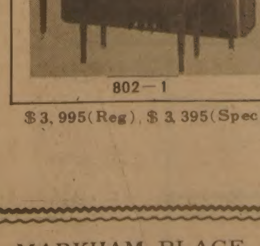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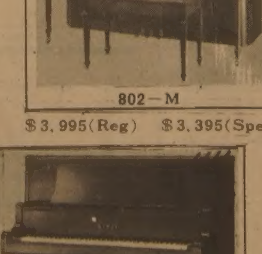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인벤토리 대매출 기간 : 2월27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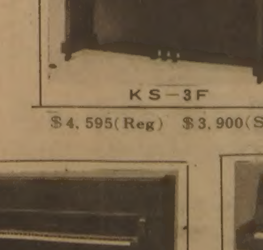
⊙본사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특별무이자 할부판매 (6개월한도내)를 단행했읍니다.

⊙은행대출알선이(1년-3년) 가능합니다

UPRIGHT 피아노


802—1 $3,995(Reg), $3,395(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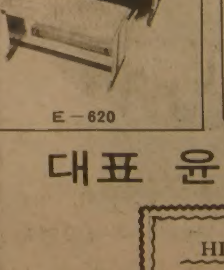

802—M $3,995(Reg) $3,395(Spec)


KS—3F $4,595(Reg) $3,900(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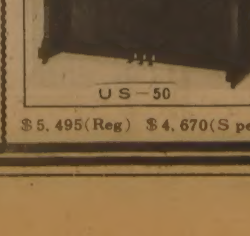
그랜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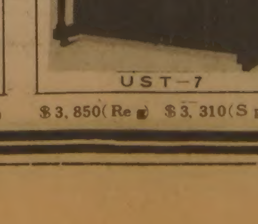
KG—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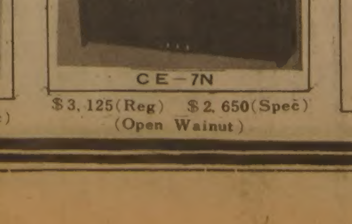
전자올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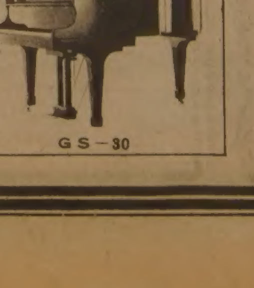

E—620

E—360


US—50 $5,495(Reg) $4,670(Spec)


UST—7 $3,850(Reg) $3,310(Spec)


CE—7N $3,125(Reg) $2,650(Spec) (Open Walnut)


GS—30

대표 윤 호 섭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韓·佛 友好불변·協力증진

盧外務 미테랑社會黨政府외교 公式확인

佛 高速열차·潮力發電등 國益추구

韓半島정책, 파트너로 한국을 評價

【파리23日=金聖佑특파원】 盧信永외무부장관의 프랑스방문은 작년5월 사회당 정권이 들어선이래 우리가 우려를 가졌던 프랑스의 對남북한 정책이 불변이라는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기회였다.

盧장관은 미테랑 대통령과의 면담및클로드·셰이송외상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프랑스와의 우호관계는 계속유지되고 협력증진될것이라는것을 확약받았다.

盧장관의 訪佛은 작년4월 지스카르 대통령정부의 프랑스와·퐁세외상의 공식방한에 대한 답방형식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외상이 프랑스를 공식방문한것은 1949년 韓佛간에 국교가 수립된이래 최초의 일이고 그것이 프랑스사회당정권하에서 이뤄졌다는것은 그자체가 뜻깊다. 프랑스측은 외상회담석상에서 한국외상의 공식訪佛이 한국정부수립후 처음이라기 보다는 1886년 韓佛수호통상조약이래 근1백년만의 일이라고 말해 그의의를 강조했다. 셰이송외상이 오는4월 한국을 공식방문하게된것도 盧장관의 訪佛이 韓佛관계의새로운 촉진제라는것을 말해준다. 외상회담에 참석한 프랑스측 한관리는 프랑스 대통령이 다른나라 외상을 잘 만나지 않는데 이번 盧장관을 맞아주었다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했다.

프랑스에서 사회당이 집권하자 우리정부가 당황했던것은 사실이다. 미테랑은 선거직전인 작년2월 平壤을 방문하고 왔다. 북괴는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맨먼저 축전을 보내는등 기세를 올렸다. 프랑스정부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드러나기 시작한것은 작년6월16일 파리에서 열린 韓佛정부간경제 실무자회의에서였다. 프랑스의 미셸·로베르 대외통상장관이 우리대표들에게 모든 韓佛간의 기존협정은 준수될것이며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계속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엘리제宮 나오는 盧외무 프랑스를 방문중인 盧信永外務長官은 22일 프랑스와·미테랑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뒤 엘리제宮을 나오고있다. 【파리22日AP電=聯合】

6개領事館 폐쇄

駐마이애미등

정부는 美國의 駐보스턴및 駐마이애미 총영사관등 6개지역의 領·總領事館을 오는28일자로 閉鎖한다고 23일 외무부가 공식발표했다.

아시아新聞財團 20차信託이사회 개막

亞洲언론 協力논의

5개국代表 참석

藝術 자율적活性化

연극·영화關係法 점차改善

李文公 TV대담서

유엔 海洋法회의

政府대표단 파견

韓美修交 1百주년 심벌마크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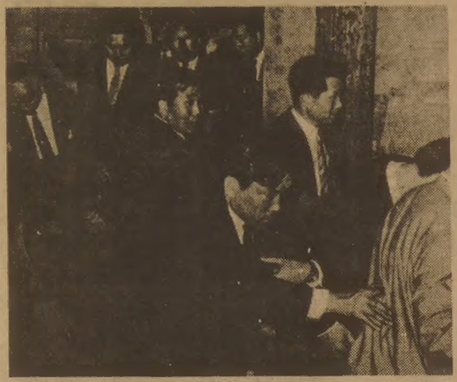
韓美修交1백주년 심벌마크

秘錄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14>

3選改憲 ①

第3別舘의 새벽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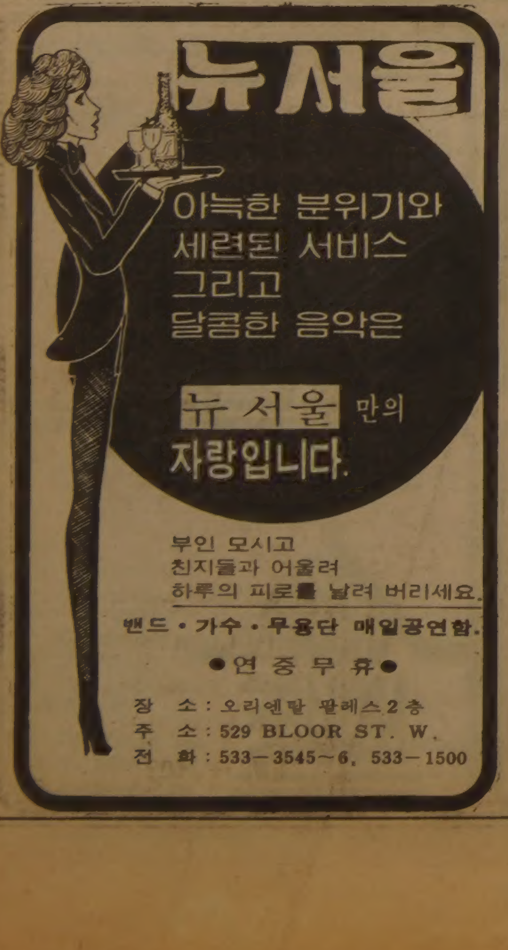
◇共和黨은 3選改憲案을 온국민이 잠든 深夜에 그것도 국회본회의장이아닌 제3別館에서 단독 날치기통과시켜 憲政史에 汚點을 찍었다.

野黨측 本會議場점거 농성중

開會式도 생략한채 電擊통과

政局진통 1年만에 朴大統領 再執權길 터

【特別取材班】



地震發生 늘어나고 있다

서울大 鄭鳳日교수 우리나라事例 文獻연구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서기원년에서 1900년까지 1천9백년동안기록에 나타난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만도 1천7백66회에 이르며 최근들어 이들 지진의 발생빈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서울대 자연대鄭鳳日교수(지구 물리학)가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實錄, 高宗·純宗實錄, 日省錄, 東國文獻備考등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지진에대한 연구결과 드러난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鄭교수의 우리나라 고지진 연구경과를 간추려본다.

◇鄭鳳日교수

리포트

頻度 3~4백년周期性…20世紀에 부쩍
서울서 宗廟殿閣 기와장 날아간일까지

<발생빈도> 서기0년에서 1900년까지 1천9백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지진은 총 1천7백66회. 이들은 모두 輕震이상의 것으로 느낄수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로 三國시대 (0~917년) 93회, 高麗시대 (917~1392년) 1백72회, 朝鮮朝 (1392~1900년) 1천5백1회로 되어있다.

지진의 강도는 輕震이 1천4백40회, 가옥이 흔들리고 창문이 덜그럭 거린 弱震이 2백8회, 꽃병이 넘어지고 그릇에 담긴 물이 흘러넘치는 中震이 65회, 벽에 금이 가고 가옥이 무너지는등 强震이상의 피해지진이 53회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록에 나타난것으로 실제론 이보다 많아 최소한 2천회에 이를 것이란 것이 鄭교수의 풀이.

지진은 3~4백년을 사이에 두고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주기성을 보인다. 즉 高麗시대인 10세기에 7회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점차 증가, 14세기에 85회로 절정을 이루었고 朝鮮朝엔 16세기에 6백90회로가장 많은 지진발생 빈도를 나타내다가 차차 줄어들어 19세기에 들어 단14회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66회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있다. 따라서 이같은 추세로볼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진활동이 점차 활발해질것이란 것이 鄭교수의 풀이. 특기할것은 피해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것. 예를들어 1518년5월 서울에선 담장이 무너지고 宗廟殿閣기와가 마치 바람에 휘날리듯 위로 날았다 떨어지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잠을 자는 사태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5~18세기. 특히 이기간동안 35회에 달하는 피해 지진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1421~1460년에 이르는 40년과 1511~1570년의 60년, 1591~1610년의 20년, 1661~1710년의 50년이 가장 활발한 지진활동을 보였는데 이중 1511~1570년의 60년이 가장 절정을 이루었다.

한편 1403년과 1530년, 1668년, 1702년 등 4회에 걸쳐 白頭山에 화산활동이 있었다.

<다발지역> 北部 (3백93회) 보다 南部 (7백82회)와 中部 (9백60회), 東쪽해안 (6백36회) 지역보다 西쪽해안 (1천3백53회) 지역 특히 평야지대에서 지진이많이 발생했다. 평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은 중국과 대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중국대륙에선 지진활동이 주로 산맥지대에서 일어나고있어 평지는 지진의안전지대로 알려져 있다. 이는 韓半島에서 산맥의 造山운동이 끝났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지진은 지진과함께 요란한 소리(地震聲)가 나는것이 특징인데 지진활동이 심했던 지역은 대략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漢江, 臨津江하류 유역과 黃海道의 禮成江 중·하류유역, 서울을위시해서 경기도 廣州, 황해도 白川에서 强震이있었고 喬洞, 江華、通津、金浦、陽州、富平등지에서 많은 弱震과 輕震이있었다.

▲충남의 揷橋川전유역과 曲橋川, 충북의 並川, 경기도의 安城川하류유역. 洪城·海美·德山에서 強震이있었고 大興·瑞山·泰安·唐津·沔川·保寧~溫陽·全義·振成등에서 中震과 많은 輕·弱震이 있었다.

▲충남·북과 전북의 錦江유역과 전북의 萬頃江、東津江전유역. 전북 高山·鎭安·全州, 충북의 靑山에서 强震이있었고 舒川·臨陂·泰仁·古阜·金堤·咸悅·益山·恩津·龍潭·文義·公州·報恩등에선 中震과 많은 輕·弱震이 있었다.

▲평남大同江 전유역과 황해도 載寧江 중·하류 유역. 平壤과 황해도의 鳳山에 强震이있었다. 평남의 龍岡·咸從·江西, 황해도의 祥原、黃州, 殷栗, 長連, 信川등지에서 中震과많은 輕震이 있었다.

▲淸川江과 大寧江중·하류유역. 평북 泰川·博川에 中震이, 寧山·寧邊·嘉山, 평남의 价川·安川등지에서 輕震이 기록되었다.

▲남해안 일대 특히 宜寧·晋州·泗川·唐津·海南·長興·靈光·天冠山에 強震과 함께 많은 輕震이 있었다.

▲동해연안일대 특히 梁山斷層帶와 함남의 永興灣지역, 경북의 蔚珍과 강원도의 동해안帶에서 비교적 많은 지진 활동이 있었다. 梁山단층대란 金海부근에서 東萊·梁山·彦陽·慶州·淸河·盈德·寧海를 연결하는 大斷層. 특히 金海와 蔚山·慶州·淸河·盈德등지에서 強震을 비롯, 많은 弱·輕震이 단층을 따라 나타났다.

鄭교수는 이같은 고지진발생 현황과 경향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光榮기자】

◇78년10월7일에 일어난 洪城지진은 축대가 무너지고 1백18동의 건물에 피해를입히는 강진을 기록했다.

15~18世紀중 35회나 被害
中·南部와 西海岸쪽이 많아

◇연대별지진발생현황 (도는MM진도구분)

세기	3도 輕震	4~5 弱震	6도 中震	7~9 피해	계
1	5	1	0	4	10
2	5	0	0	0	5
3	8	0	0	0	8
4	7	0	0	3	10
5	5	0	0	2	7
6	4	0	0	2	6
7	13	0	0	1	14
8	18	2	0	2	22
9	8	1	0	0	9
10	6	0	1	0	7
11	27	2	2	1	32
12	15	1	0	0	16
13	30	2	4	2	38
14	78	0	5	3	86
15	222	3	1	2	228
16	527	129	26	8	690
17	276	47	18	17	358
18	173	20	8	5	206
19	13	0	0	1	14
계	1440	208	65	53	1766

中耳炎환자 人口의 5%

서울大 金宗善박사팀 「有病率」첫조사

74%가 慢性…江原·全北·서울 順
그중 難聽原因인 眞珠腫性이 12%
先進國보다 높아…對策 서둘러야

◇金宗善교수

우리나라사람 1백명중 21명 정도가 한가지 이상의 耳鼻咽喉科질환을 갖고있고 4·6명꼴이 難聽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中耳炎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서울대의대 이비인후과 金宗善박사팀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23개지역 1천79가구, 4천8백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한국인 중이염 有病率조사」로 밝혀졌다. 전국 규모의 중이염 유병률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

중이염은 74%정도가 만성, 24%정도가 滲液性, 2%정도가 급성을 보였는데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많아 1천명당 55·21명, 다음이 전북 (51·49명) 서울 (43·74명) 부산 (43·01명)의 순을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22·37명). 연령별로는 45~50세가 가장 많아 83·7명을 기록했고 다음이 40~45세(79·4명) 50~55세(77·3명)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46·14명)이 여성(45·72)에 비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인 만성중이염은 眞珠腫性이 12%를보여, 큰 경종을 울렸다. 진주종성중이염은 귓속의 뼈를 파괴하는 가장 고약한것으로 난청은 물론 심하면 뇌막염등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수있는것이다. 또 穿孔性이 70%나 차지, 상당수의 중이염이 수술해야치료를 할수있는 비교적 진행된것임을 보여 주었다.

이같은 중이염 발생빈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 낸다.

金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에 비해 농촌, 여자보다 남자에서 중이염 발생빈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나있으나 이는 인종 영양 (특히 비타민 결핍) 면역 앨러지 耳管기능장애등과 복합적인 관계를갖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는 이들 중이염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科學短信

한국科技 정책학회 創立총회·學術발표

한국과학기술정책학회 (대표간사 李在旭) 창립총회및 학술발표회가 24일 한국과학기술원 강당에서 열린다. 학술발표 연제와 연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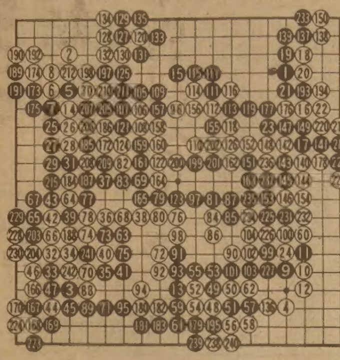
▲世宗代 과학기술정책의 한 단면 (全相運 성신여대대학원장) ▲산업기술변화형태와 정책 (金仁秀 한국과학기술원교수) ▲우리나라과학기술 발전의 前衛구축 (權哲信 한양대교수)

科技總聯 정기총회

사단법인 한국科學技術단체총연합회 (회장 閔寬植) 제17회 정기총회가 24일하오3시 全經聯회관 국제회의실(3층)에서 열린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總譜240手完 白 9집반勝 (각5시간 덤5집반)



白 (7段) 河燦錫 <2勝1敗>
黑 (6段) 姜哲民 <0勝5敗>

河7段 力戰의譜

꼭 河7단의「力戰」이라기보다 쌈밤이 있는힘을 다한것이 사실인데 역시 이기력이 돋보이는 것은 어쩔수 없다.

다만 이상한것은 姜6단이 또 역전패를당한 일이다. 이상하다기보다 승운이 없다할까. 좌우간 첫판을 裵勳4단에게 일패 역전패 당한이래 거듭 쓴입맛을 다시어야 했다.

한편 河7단은 중반부터 역경에 쫓기면서도 힘들다하여 계속반격했고 특히 수차례의 승부수를 우변에서 대득불은 수법은 가히 일품. 그 같은 수읽기에는 많은고단자가 찬사를 아끼지않았다.

이것으로 2승1패를 기록한 현재 3승무패인 裵勳4단의 뒤를 3승1패인 張秀英6단 2승1패인 徐奉洙7단등과 함께 바짝 좇게되어 올해의 리그戰은 예상외로 일대각축전을 벌일것같다. 파면 이들4명중 누가 도전권을 따내느냐. 흥미는 고조되어가고 있다.

과 우하귀의 黑9, 11을 방치하여 기이한 포석으로 출발했으나 白62의 싯점에서는 白이 실리면으로 압도하고 있었다. 그후 黑63이하의 총공격에서 白72는 직접76에 뛰어야했고뒤쫓은白76은79등으로 속히 탈출해야 되었다.

급기야 黑87까지 黑의 외세가 막강하여 열세가 분명했는데 白은 좌변대마가 104로 후퇴하는 바람에 손해막심. 白96의 승부에대해 黑105이하의 공격이 느슨했고, 큰 끝내기단계에서 白이 우변을 빼앗은것이 역전의 원인이었다.

171…44, 190…51, 213…185, 214…5, 216…39, 217…208. 소비시간 白‖2·55, 黑‖3·7. 【一九】

放送街소식

MBC계열사 株總 社長 3명등 更迭

文化放送(MBC)은 지난 15일~20일 21개계열사의 주주총회를 열고 光州·全州·晋州MBC사장과 理事 4명을 새로 선임했다.

▲光州MBC사장 馬三烈(光州日報전국장)▲〃상무 崔昌俊(상임감사)▲全州MBC사장 崔圭哲(라디오제작국장)▲晋州MBC사장 李鍾泰(상무)▲大邱MBC이사 文獻相(문화재관리국장)▲釜山문화TV상무 申貞休(大邱MBC이사)▲大田文化TV이사 金時鐘(편성국장)

영화배우 金芝美 佛敎서 天主敎로

영화배우 金芝美가 종교를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다.

金芝美는 오래전부터 忠南 修德寺의 보살로 매월 불공을 드리러 다니는등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나 먼저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가수인 부군 羅勳兒의 권유에 따라 지난달초부터함께 성당에 나가고 있다고.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①

어린 時節

咸昌땅 中農집안 次男… 漢文학습
端午낙화놀이때 불꽃보며 꿈키워

金海구지봉에 하강했다는 首露王 6형제가 각기 가야국을 세웠다. 金海의 금관가야, 咸昌의 古寧가야, 咸安의 아나가야, 高靈의 대가야, 星州의 벽진가야, 固城의 소가야가 6개의 가야국이다.

현 咸昌은 고려광종때는 咸寧으로 불렀다. 나의 본관은 咸寧이다. 1911년 古寧가야의 종조 덕원군의 36대손으로 태어났으니 古寧가야국의 왕손인 셈이다.

나의 뭇목은 가야왕릉이 있는 咸昌에서 약3백년동안 살아왔고, 나도 그곳에서 中農의 차남으로 태어나 소년기를 보냈다. 옛왕도 용족으로 맑게 흐르는 영순강, 남쪽에 우뚝솟은 오봉산은 소년기의 요람이었다. 왕릉의 모태인 왕릉산의 푸른 소나무와 잔디밭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최근 가야문화권발굴로 태조왕릉은 79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正三品通政大夫中樞院參議를 지낸 조부(金圭煥)께서는 어린 나에게 通鑑과 당음을 가르치셨다. 글씨도 배웠다.

「아미산월가(歌)라, 아방청계향삼협하니 사군불견 하유주라…」.

어렸듯이 뜻은 알듯했으나 문장속의 참맛은 알지못한채 배웠다. 대학시절 唐詩를 좋아해서 그 뜻을 되씹어보고는 조부의 가르침을 깨달았다. 儒學바탕의 선비정신을 어렸을때부터 심어주려는 뜻이었다.

후일 내가 예술의 길을 걷고 漢詩와 서도의 맛을 즐기게된것도 조부의 영향에서다.

유별나게 엄격했던 선친에게서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떼고는 서당에 나가 통감을 배우기 시작했다. 삼국사기와 전국시대의 단편사도 배웠다. 中原의 정치판도와 영웅전, 영웅의 흥망성쇠를 들었으나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仁義禮智를 중심으로한 小學·大學·論語등도 강제주입식으로 암송하고 반복했다. 외는동안 터득한것은 터득하고 이해하지 못한것은 그대로 넘어갔다. 이해하지 못할것은 당음도 마찬가지였다. 「차문주가하처재오, 목동이 요지행화촌이라…」(말좀 물어보자 주막집이 어디 있는고? 목동이 살구꽃핀 마을을 가리키더라). 그곳은 배웠으나 서양무엽 술집을 찾는 심정을 아이들이 알리 없었다. 다만 당음을 읽어내려가는 낭랑한 소리가 좋았다. 가사의 뜻도 모르고 팝송을 신나게 부르는 요즘의 젊은이들처럼 어린시절, 황호지에 쓴 당음이 험한 뿐이었다.

◇尙州郡咸昌에있는 古寧가야의 태조왕릉. 나는 1911년 古寧가야의 종조 덕원군의 36대손으로 태어났다.

황토물간주(훈장의 접수)라도 받는 날이면 어머니를졸라 스승께 막걸리를 대접했다. 5월단오에는 명아주줄향을 들인 창호지에 숯가루를 싸 나무에 매달고 불을 붙이는 낙화놀이도 했다. 밤하늘을 수놓으며 타들어가는 불꽃을 보며 아이들은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꾸곤 했다.

섣달 그믐날밤이면 하방연등이 삼아준 오색꽃신을 머리맡에 두고 눈썹이센다는 속설을 믿고 잠을 참았지만 끝내는 곯아떨어진다. 설날아침 눈을 떠서는 누나가 밀가루를 발라놓은 것도모르고 하얀 눈썹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창의 사진을 보듯 떠오르는 꿈많은 어린시절의 면면이다.

나의 유년기는 서당교육이 학교교육으로 바뀌는 교육·문화의 전환기였다.

그무렵 완고하기로 소문난 선친도 「속수국어독본」을 놓고 日語를 공부했다. 일본시찰단의 일원으로 선발돼 九州지방을 돌아보고귀국, 강연회를 갖기도 했다. 선친은 일본의 개화된 모습과 풍물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임진왜란때 끌려간 우리나라의 도공들을 九州의 薩摩燒신사에서 만났을 때의 얘기는 어린 나의가슴에 울분의 불을 질러놓았다. 그도공들이 조국의 말을 잊어버려 日語만을쓰고 의상도 일본것을 입는일본인이 되있더라는 선친의 강연을 듣는 어린가슴에는 일본에대한 막연한 증오가 싹텄다. 그러나 훗날나는 그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일본을 다녀온 선친은 상투를 자르고 중절모를 썼다. 손가락으로 소금을 찍어하던 양치질도 칫솔과 치분으로 바뀌었다. 古寧가야의 태조왕릉마을의 오랜 전통과 관습은 서서히 무너지고 개화의물결이 밀어닥치기 시작한것이다.

현대인의 健康百科 <320>

姙娠초기의 服用藥物과 有關…適期에 수술받아야

언청이

언청이는 입명 구순열 또는 재보라고도 한다. 이는 윗입술의 한쪽혹은 양쪽이 일부 또는 전부가 선천적으로 갈라져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입천장까지 갈라진 구개열이 합병되기도한다. 이런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들은 아기 어머니의 책임인것처럼 생각들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에대한 확실한 의학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언청이가 마치 일종의 유전적인 질환으로 잘못생각, 가족중에 언청이가 있다고 결혼을 거부하는 일마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실제로 필자가 지난 5년간 수백명의 언청이 아동과 그부모를 대상으로 염색체 배양검사를 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유전적 소인을 발견치 못하고 있다.

다만 가족력 검사에서 언청이가 있는 가정중 당사자의 직계에서, 언청이가 없는 가족에서보다 발생빈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줄 뿐이다.

가족력이나 유전현상보다 한층뚜렷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산모가 임신초기 즉 2개월 미만기간동안 감기에 걸려 감기약이나 진통제등을 복용하였다든지했을때 이다. 입덧이 심하여 입덧 치료약제나 보약을 복용했다든지 드물게는 피임약제를 복용한 경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있다. 입술언청이는 입천장 언청이와는 달리 그 변형자체외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만 잘받으면 사회생활은 물론 개인생활에도 전혀 지장이없다.

실제로 적기에 수술을 하면 성장해서 전혀 수술 흔적을 알아볼수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적절한 수술 시기는 증세에 따라 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 입술 자체만 갈라져 있을경우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은 3개월 정도가 적기라고 하지만, 입술의 발육이 충분히 되어있는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하는것도 필자의 경험으로보아 권장하고 싶다. 물론 입술이나 입천장이 같이 갈라져있으면 그시기를 전문의사와 상의하여 정하는것이 좋다. 언청이 수술은 두번을 하는것이 아니고 단한번의 수술로 끝내야한다. 수술은 전신 마취로 하게되나 5~6일간 입원하면 충분하다.

咸基善 【醫博·가톨릭의대 성형외과교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44>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숨바꼭질 ㉛

기둥위의 눈금때문에도 질투하고 싸우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애지중지 하던 것, 유별나게 집착하던것, 긴 겨울의 추위를 가려주던 것, 손때 묻은 일용품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넝마장수도 안 집어가게 생긴 쓰레기더미로 변한 걸 보면서 목이는 가슴 밑바닥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을씨년스러웠다. 쓸쓸이 흩어진아이들이 어디서 꼭 그 모양으로 천덕꾸러기가 돼있을 것 같았고, 그랬을 원장 아버지한테 들리고 싶어 그녀의 작은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 오늘 여기 정(情)떼러 왔나봐』

목이는 저만치에 네 활개를 벌리고 수셔박힌 진흙색 코트를 집어들며 야무지게 말했다. 쥐 오줌 냄새가 폭 해서 그녀는 곧 그걸 내던졌다. 그건 구제품이었지만 폭신하고 빛깔이 고와서 그녀가 오래도록 애용하다가 무릎위로 올라올만큼 깡총해진 후에야 그녀 마음에 든 아이에게 살짝 물려준 거였다.

『나한테 정 떨어지면 곤란한데』

『내가 언제 오빠한테 정이 붙었다고 떨어지고 말고가 있어. 원장 아버지말야. 그 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했다구. 이제 다신 안 보고싶을테야. 미워, 친부모라면 자식들이 쓰던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내버리진 못했을 거 아냐』

『그래, 그러니까 그 분들은 우리의 친부모가 아니지』

일확이가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묘하게 어른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들한테 조금이라도 정이 있었으면 이럴수는 없어』

목이가 이를 악물면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목아, 흥분하지말고 생각해 봐. 삼사십명이 함께 들끓던 살림살이가 갑자기 두 식구로 주는데 버릴게 오죽 많았겠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지겨웠으면 우리 물건을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내굴리겠어. 난 꼭 배신당한 것처럼 분한 걸』

『그분들은 우리의 친부모가 아니었고 우린 그분들이 돌봐준 고아에 지나지 않아. 그분들은 참 우리한테 잘해 주셨고 우린 그것만 잊지않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저 살기도 바쁜 전쟁통에 남이 못할 어려운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그일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서야 당신들 할 일을 찾아간 그 분들을 그런식으로 원망하는 건 옳지않아』

일확이가 제 말에 스스로 취한듯 상기했다.

『오빠 왜 그래?』

『뭘?』

『너무 어른 같은 소리만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난 어른이니까』

『피이, 언제적』

『난 벌써부터 어른이었어. 고아는 빨리 어른이 될수록 좋아』

『왜?』

『어른이 돼야 가족을 만들수 있으니까』

『가족을 어떻게만들어?』

『왜 못만들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가족이지. 고아가 고아신세를 면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난 될수 있는대로 아이를 여럿 낳을거야』

일확이가 씩 웃었다. 뻐드렁니가 보기싫어서 목이는얼른 외면을 했다. 부엌뒷문이 바람에 맥없이 열리면서 맞바람이 쳤다. 부엌바닥의 쓰레기더미가 어수선하게 몸을 뒤챘다. 일확이가 뒷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만 둬』 목이가 일확이를 밀치고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 / Yonge / King

내고향 통닭집

〈오늘의 메뉴〉
전기구이 통닭 오뎅, 가깨우동
곰탕, 설농탕, 김밥
생선초밥, 빈대떡, 만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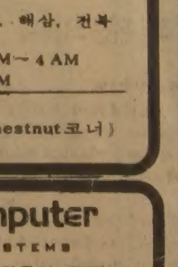
영업시간 : 아침 10시~새벽 1시
전화번호 : 537-0432
658½ BLOOR ST. W.
대표 : MRS. 리
MANNING / BLOOR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金泰式、스스로 挑戰 포기

"技術보완부터…" 에레라戰 유산

◇金泰式선수

金泰式의세계도전이 7월이후로 연기됐다. 프로복싱 WBA 플라이급 10위에올라있는 金은오는3월14일하오(한국시간) 멕시코 메리다市에서 동급 챔피언 환·에레라(멕시코)에 도전키로 결정하고 강화훈련을해왔으나 최근『좀더 경기경험을쌓고 기량을 보완한후 세계에도전하고 싶다』는 내용의 의사를 金榮鎬회장과 金奎喆 매니저에게 밝히고 세계도전연기를 요청함으로써 金─에레라 간의 3월대결은 사실상 깨지고 말았다.

이미 대전계약서와 초청장을 전달받은 金측에서는 21일 對에레라전을 주선한 라파엘·멘도사씨에게 대전연기를 공식통보했다.

金은 지난13일 大邱에서日本의 후나끼(船木和義)와의 재기전서 TKO승을 거두었으나 국내 권투관계자들은 이경기를 지켜본후『金의 기량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것이없으며 수비에도 허점이여전했다』고분석, 좀더 기술을 연마한후 세계에 도전시키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金은 후나끼와의 경기를마친 이튿날『에레라와의 대전을 뒤로미루어달라』고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권투계에서는 에레라가 3월 2차방어전을마치면 이어서 지명방어전을 치러야하기때문에 앞으로 에레라가 金의 도전을받아들인다 해도 7월이전에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黃善愛 4시드배정 3월 全英배드민턴

【런던22日聯合】세계여자배드민턴 챔피언인 黃善愛는 오는3월 런던에서열릴 全英國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식종목 시드배정에서 4번시드를 받았다.

全英대회 조직위가 22일 발표한 금년도 대회의 남녀부문 시드배정에서 지난대회 우승자인 黃善愛는 부상으로 인한 오랜 국제대회 불참때문에 4번 시드를 배정받았으며 1번시드는 中共의 장아일링, 2번시드는 지난해 黃善愛와 결승에서 맞붙었던 덴마크의 레네쾨펜, 3번시드는 中共의 리·팅·웨이가 각각 올랐다.

全英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中共은 8번까지의 여자단식 시드배정선수중 3명이 들어있으며 남자단식에서도 4명의 선수가 시드배정을 받아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갖게됐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 [illegible]

아마복싱 代表선발
徐喜宗1회 文成吉2회 申昌錫2회서
각각 KO승

제3회 세계아마복싱 선수권대회파견 한국대표 2차선발전 이틀째경기가 23일 문화체육관서 속행, 강타의 KO전이 속출했다.

이날 페더급 2회전서 徐喜宗(수경산)은 강한 라이트훅을 韓鍾建(경북체고)의 턱에 명중시켜 1라운드2분10초만에KO승을거두었다.

밴텀급 2회전에서 文成吉(목포대)은 李鍾문(화랑권투)과 대결, 2라운드첩어들어 오른쪽 스트레이트결정타로 23초만에 통쾌한 KO승을 거두었으며 같은급의 申昌錫(원주복싱)도 趙洙영(경북체고)을 2회1분10초만에 KO로 물리쳤다.

女子배구 長身化 됐으나 민첩성은 전보다 둔해져

來韓한 日대표팀 小島감독이 본 한국戰力

速攻 살리면 威力

주니어代表는 訓鍊보다 공부充實
對韓戰 참패 當然…強化策 세운다

日本 여자배구대표팀 고지마(小島)감독이내한했다. 고지마감독은 NHK杯국제배구대회(5월·日本오사까)에 출전하는 한국과 업무연락을 하기위해 방한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국대표팀의 전력을 사전에 탐색하는것이 보다 큰 방한목적이 있는것으로 배구계는 보고있다.

고지마감독에게 비친 韓·日양국배구의 전망은 어떤것인지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한국 여자배구의 전력을 어떻게 보고있는가.

▲지난 77년을 기준으로 볼때 당시 한국대표팀은신장은 작았지만 대단히 민첩한 플레이를 펼쳤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배구의장신화 추세에따르다보니 그과도기적 상황에서 민첩성을 상실, 다소 침체기에있는것같다. 하지만 속공등 한국의 특징을살린다면 그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日本은 주니어 수준서는 韓國에 뒤지고 있으나 막상 대표급 전력으로는 앞서고 있는데?

▲나도 그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학생선수면 누구나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고난뒤 훈련을 받는다. 연습시간도 하루 2시간반정도이며 대부분 기본기훈련에·중점을 둔다. 한국에대해 상세하게는 모르나 주니어의 경우 日本과는 다르다고 본다. 이것이 원인중의 하나인 것같다.

─한국·日本·中共등 이른바 동양배구는 앞으로국제무대에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日本이 中共과 다시 대결한다면 겪을수 있다고 보는지?

▲더 빠른 공격과 수비에 더욱 열중한다면 아시아권 배구는 결코 비관적이 아니다. 日本협회는 올해 주니어팀의 강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원정도 2배로, 합숙기간도 더 늘린다. 앞으로 주니어를 어떤 방법으로 시니어로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이긴하나 꾸준히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본다. 덧붙이고 싶은것은 어떤경기든지 진다고 생각한적은 없다.

─올해 페루서열릴 세계선수권대회를어떻게 보는지?

▲지난번 월드컵배구대회때와 비슷한 성적이 매겨지리라본다. 그러나 지난번대회때는 蘇聯과 美國이 예상외로 저조했는데이들 두팀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의문이다.

─올해 日本리그는?

▲오는 3월7일 끝이나는데 (지난12월14일개막) 1위 히다찌, 2위 유니티카 순이다. 올해부터 8팀이 풀리그를 3번씩했다. 선수들의 부상과 피로가쌓이는 단점은있으나 선수층이 넓어진다는 좋은점도 발견됐다.【金】

◇고지마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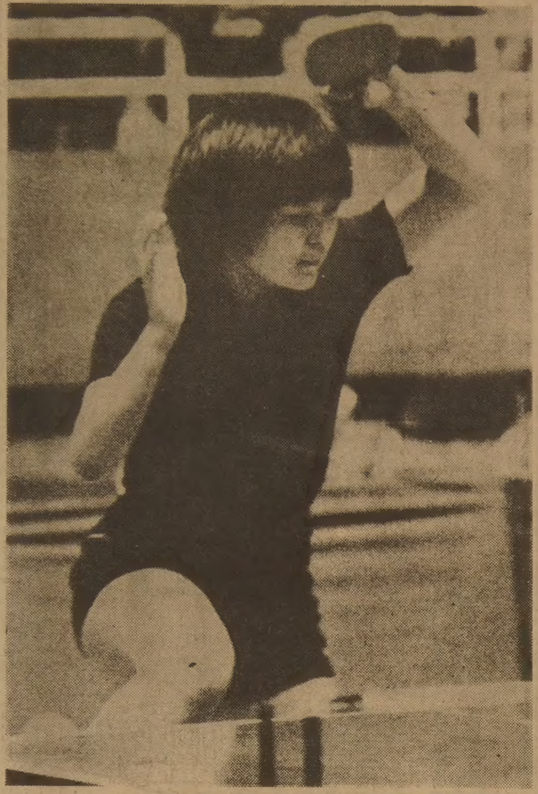
技倆보다 힘의 卓球시대로

趙東元·李美雨 단식 制覇

池龍玉·金泰秀조 男 / 申得花·張金玉조 女 복식우승

大宇重工業은 남자단체전도 優勝

남녀 綜合 탁구選手權


◇新銳의 猛威＝여자단식서 우승을 차지한 李美雨.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라섰다.

실업2년생 李美雨(19·제일모직)와 前국가대표 趙東元(23·육군)이 제35회 전국 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개인단식패권을 차지했다. 성환국민교 5년때 라켓을잡아 서울瑞星여중 3년때 문교장관기 대회서 준우승한후 처음 전국대회결승에 오른 왼손드라이브의 李美雨는 23일장충체육관서 폐막된 대회최종일 여자단식결승전서 양 핸드 전진속공으로 위세를 떨치던 경주 董花女高의신예 金淑姬(17)를 접전끝에 21─19, 21─19, 22─20으로 제압,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金淑姬는 이질(異質)의 페인트 러버로 높은 타점의 날카로운 백핸드공격을 퍼부으며 金恩喜(제일모직)·申得花(코카콜라)·鄭庚子(코카콜라)등 선배들을 차례로눌러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었으나 5세트의 결승전서 李美雨의 힘에 밀려 처음우세하게 이끌던 제3세트를서브미스와 공격미스로 아깝게 놓쳐 완패했다.

남자단식결승서는 趙東元이 29세의 노장 孫城淳(대우중공업)을 21─18, 21─19, 21─13으로 완파, 첫 종합선수권을 차지했다.

남자복식 결승전서는 池龍玉·金泰秀조와 孫城淳·朴昌益조의 大宇선수끼리대결, 池·金조가 21─18, 21─18로 이겨 우승했다.

여자복식 결승서는 申得花·張金玉조(부산코카콜라)가 李美雨·金順粉(제일모직)조를 21─20, 21─9로 누르고 우승했다.

남자부에서는 大宇重工業이 단체전과 복식두종목을석권했으며 여자부서는 申得花가 복식경기에서 2연패했다.

◇최종일결승전

▲남자단식
趙東元(육군) 3 (21─13 21─19 21─18) 0 孫城淳(대우)

▲여자단식
李美雨(제일모직) 3 (22─20 21─19 21─19) 0 金淑姬(근화여고)

▲남자복식
池龍玉·金泰秀(대우) 2 (21─18 21─18) 0 孫城淳·朴昌益(대우)

▲여자복식
申得花·張金玉(코카콜라) 2 (21─9 22─20) 0 李美雨·金順粉(제일모직)

▲혼합복식
金容鉉·金恩喜 2 (21─15 22─20) 0 李眞淑·金泰秀

蹴協 各級코치選任
花郎 金正男씨유임

대한축구협회는 청소년대표상비군·고교상비군·중학상비군 코치를 23일 각각 임명했다.

또한 오는3월21일의 제10회 韓·日정기대항전에 출전할 대학선발팀코치에 鄭鍾德씨(建國大코치)를 선임했다.

청소년대표상비군코치에 朴鍾煥씨(서울市廳)가, 고교상비군은 朴景和씨(培材高)·중학상비군코치에는 吳璜英씨(大田商高코치)가 각각 임명됐으며 트레이너및 선수선발은 코치에게 위임하되 이사회의승인을 받도록했다.

한편 대표팀은 개편없이 그대로 운영된다.

한국、7體級 우승

國際유도、銀1 銅1씩

【매나마23日聯合】쿠웨이트 건국기념 제1회 국제친선유도대회에 출전중인 한국팀은 22일 마지막 3일째 경기에서 朴永喜(엑스트라·라이트급60㎏·원광고)과 陳成雲(무제한급·유도대)이 金메달2개를 추가, 모두 金7, 銀1, 銅1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팀은 네덜란드·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등 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쿠웨이트의 알아라비홀에서 벌어진 이번대회에서 8개체급중 7개체급을 석권,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朴永喜은 이날 1회전에서 사우디의 압델·압불·마지드선수를 업어치기절반, 업어치기유효및 효과등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서는 쿠웨이트의 자말·알아타르를 업어치기 효과와 발가로누워꺾기로 제압한후 결승에 진출, 네덜란드의 라우벤스·반아스를 업어치기효과와 유효로승리 금메달을차지했다.

모리타니 大破
농구 3승1패

【마나마(바레인)22日聯合】국제친선 남자농구대회에 참가중인 한국남자농구대표단은 22일 쿠웨이트에서 속개된 5일째 경기에서 모리타니를 77─51로 격파, 3승1패의 전적으로 4승의 브라질에 이어 2위를 달리고있다.

한국팀은 이날 약체 모리타니를 맞아 전반전을 47─26으로 리드한후 후반에서는 2진을 기용하는 여유를 보이면서 26점차로대승했다.

한국은 현재 유고와 3승1패로 동률2위를 달리고 있다.

◇제4차전
한국(3승1패) 77 (30─26 47─25) 51 모리타니(4패)
브라질(4승) 117 (59─48 58─49) 97 중공(1승3패)

"研究 현실感覺 가미를"
金부총리 KDI 報告 받아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순시, 금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金부총리는 이자리에서 당면 경제문제 해결이나 연구업무 개발에 보다『현실적인감각』을 가미해주도록 당부하고 반드시『實物的인 검증을 거쳐 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도록』지시했다.

또 KDI의 장단기계획수립은 총량적인 巨視측면못지않게 개별산업등 微視측면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주도록 요청하고 정부도 KDI의 연구내용을 死藏시키지않고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7代會長 李東燦씨
經營者協 정기總會

韓國經營者總協會는 23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회장에 李東燦코오롱그룹회장을 선임했다.

李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勞總과 대화와 협조를 통해 韓國的勞使觀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經濟短信

▲國際그룹、일부 임원진 개편＝國際그룹(회장 梁正模)은 23일 단행된 주요系列社임원진 개편에서 東國永사장을 東西證券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후임에 李興鎬씨(前東和證券사장)를 기용하는 한편 元豊産業 吳俊碩부사장후임에 前東海펄프부사장 鄭運稷씨를 각각 내정。▲國際土建常務 朴榮圭(前부산시商工局長)▲國際通運常務 金柔燁(常務서 승진)

▲럭키그룹、2년만에 대규모人事＝럭키그룹이 23일 임원진에 대한 승진、전보를 실시。이번 인사에서는 16명의 理事가 새로 탄생했다。

[illegible]

◇理事轉補▲金星精密 李永弘(喜星産業)▲〃 全英瑨(金星自販機)▲金星半導體 申華淳(金星通信) ◇特採任員▲金星社專務 朴鍾根(前經濟企劃院 豫算審議官)▲企劃調整室常務 諸一鎔(前국제경제연구원 연구위원) ◇協力社轉補▲韓部工業專務 洪性幸(金星計電理事)

▲三煥企業고문에 崔錫元씨＝三煥企業(대표崔鍾煥)은 전건설부차관 崔錫元씨를 고문으로 추대。

▲斗山開發사장에 閔丙晙씨＝斗山그룹(회장 朴容昆)은 22일 斗山開發사장에 閔丙晙 전合同通信부사장을、斗山信用協同組合이사장에 南宮元 전斗山農産사장을 선임。

▲釜銀 理事에 金智卓、金昌熹씨＝釜山銀行은 23일 주총에서 金智卓국제부장과 金昌熹 심사1부장을 각각 신임理事로 선출하고 14％배당을 하기로 의결。

▲三益住宅 15％배당＝三益住宅은 25일 서울크라운호텔에서 주총을 개최、15％ 배당을 의결할 예정。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아빠, 2달러만 빌려 주실수 있겠어요?" "그렇게하지"

"여보, 10달러 빌려 써도 될까요?" —응응—

"난 빈털털이가 됐어…알렉산더는 아무것도 빌수가 없을거야"

"아버지 바지를 좀 빌려야 겠어요… 엄마가 제바지를 세탁소로 보냈거든요"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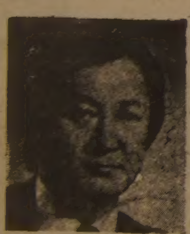
우리는 자랑스런 캐네디안

광활한 지평선과 장래가 약속된 무한한 발전을 잠재한 국가—
우리가 사랑하는 캐나다.

우리는 문화가 다양하고 좀더 단결된 캐나다연방의 한 멤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의 새 헌법은 밝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이다.

온타리오주 수상 :
윌렴·데이비스
장 관 : 토마스·웰스
Ontario Ministry of Intergovernmental Affairs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목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네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0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토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거미줄 航空노선」은 꿈인가

—88올림픽등 앞두고 적극政策 아쉽다

한국就航社 단골7개國뿐
KAL가는곳도 15國23都市만
KAL 과잉保護깨고 多國化시급

민족의 총력을 쏟은 88올림픽등 거국적인 행사를 앞두고도 서울을 왕래하는 국제항공망은 대비책이 너무나 미흡하다. 앞으로의 야심적인 확장계획이 없다. 현재 실정도 국제기준에 비해 처지는 형편. 올림픽붐의 근간중 하나인 항공망이 이처럼 전망이 어두운 것은 적극적인 항공정책이 없기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뿐만아니라 유일한 민간항공인 대한항공(KAL)의 국제노선도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의 金浦공항을 왕래하고있는 항공사는 KAL을 포함, 모두 8개사 뿐이며 KAL의 국제항로도 15개국 23개도시에 그쳐 歐美지역은 물론 동남아각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져있다. 「올림픽겨냥」은 말고라도 시대의 흐름에 뒤져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취항하고 있는 외국항공기는 일본항공(JAL) 노스웨스트(NWA) 싱가포르항공(SIA) 타이항공(TG) 말레이지아항공(MAS) 홍콩(CPA) 臺灣(CAL)등 7개국이며 이밖에 화물기로 홍라잉 타이거가 취항하고 있다.

이같은 실태는 구미선진제국과는 비교도할수없으며 동남아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방콕38개국기, 도쿄36개국기, 싱가포르33개국기, 홍콩29개국기, 마닐라26개국기, 콸라룸푸르20개국기, 자카르타17개국기, 타이페이12개국기로 서울과는 비교가안될정도로 항공편이 다양하다.

또 이들 나라의 자국기 국제항로도 JAL31개국(52개도시) 타이항공 28개국(34″) 싱가포르항공 27개국(36″) 필리핀항공 19개국(22″) 말레이지아항공17개국(21″) CPA 15개국(22″) 印尼의 가루다항공 16개국(19″) CPL 10개국(15″)이다.

그러나 KAL의 국제항로는일본의도쿄 오사까 후꾸오까 나고야 니이가따 구마모도등 5개도시와 中東5개도시(제다 쿠웨이트 아부다비 다란·콜롬보)를 제외하면 미국의 2개도시, 프랑스, 스위스등으로 사실상 국제노선이 다변화되어있지 못한 형편.

이에대해 교통부당국자들은 이들 동남아 각국이 항로상요충지인데다 여행자유화가 일찍시작돼 승객수요가많은데비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여건에 있고 여행자유화가 늦게시행돼 국제선항공사들이 취항을 기피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국제항공계에서는 이같은 후진성이 그동안 교통부에서 KAL의 자국기보호라는 측면만을 고집해 소극적인 항공정책을 온결과라고 분석하고있다.

항공관계 전문가들은 泰國·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지아등 동남아각국들이 반공국가이면서 항공분야에서만은 정치성을 배제하는등 적극적인 항공개방정책을 펴 공산권항공사들까지 취항시키는등 항로개발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같은 다양한 항공편을泰國·싱가포르등은 관광외화수입이 국가전체 외화획득의 80%를 차지하고있고 세계적인 기내식생산 공장을설립, 각국항공사에 제공하는 기내식수입만도 항공사 1년수입과 맞먹고 있다는 것.

하긴 중공의 문호개방정책과 한국의 여행자유화, 국력신장등으로 급격히 늘고있는 한국여행객들을 노려 서울취항을 서두르는 국제항공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유럽의 몇몇 항공사들이 서울취항을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KAL도 금년중 서울—바그다드, 濟州—東京간의항로개설계획만 세워놓고 있을뿐이다.

또 에어·프랑스(AF) 브리티시·에어웨이즈(BA) 루프트한자(LH) 사우디항공이 서울취항을 서두르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교통부에 취항신청을 아직 내지않고있는 상태다.

이같은 움직임이전에 지난 80년 韓佛항공회담이 서울(5월)과 파리(12월)에서, 韓英항공회담도 지난해 서울(6월)과 런던(9월)에서 각각 두차례씩 열렸으나 서로 제3국간 이원권등 복잡한 이해관계에얽혀 타결되지않고있다.

또 BA의 경우 현재 런던~홍콩간 노선을 서울까지 연장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KAL은 런던까지 승객수요가 많지않을 것으로 예상, 중간경유지화보다 쉽지않아 BA의 서울취항을 꺼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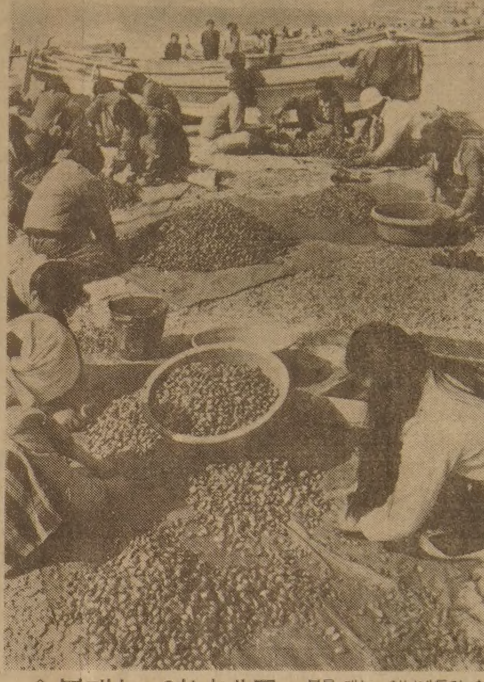
이 두항공사간에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이문제는 영국정부가 같은 영국항공사인 CPA의 서울~홍콩간 週7편, KAL의 週15편운항횟수가 균형을잃고있다고 늘고나와 KAL의 홍콩以遠權중지를요구, 금년1월부터 KAL의 동남아황금노선인 서울~타이페이~방콕노선(週4편)이 취소되는 결과로끝났다.

또 西獨의경우는 우리교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KAL은 西獨에 취항을 희망하고있으나 항공협정을 西獨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

항공전문가들은 이처럼 국적이해관계가 얽혀 항공경쟁이 치열해져가고 있는만큼 항공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항공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있다.

현재 우리정부에는 형식상 항공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적은 있으나 거의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서울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다면 제주도를 자유항으로지정, 정치성을 배제해 국제주요항로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있다 이들은 또 동남아각국의 자국기들이 항공개방정책에 따라 세계적인 항공사들과 경쟁에서 조금도처지지않고있음을 지적하고 KAL도 국제화시대에맞춰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때가 됐다고 말하고있다.

【林承茂기자】



◇봄캐는 아낙네들　봄을 캐는 아낙네들의 손길은 바쁘다. 서해안에서는 해마다 1월부터 3월말까지 봄철 조개잡이로 큰수입을 올리고있는데 날씨가 온화한 요즈음이 제철이다. 새벽일찍 배를타고나가 바다밑 뻘을 퍼다가흙속에 파묻힌 조개를 골라내면 1인당 하루 1만원벌이는 너끈하단다. 【22일 大川해수욕장에서 金龍逸기자찍음】

◇KAL국제항로

취 항 국	취 항 도 시
일본	東京, 大阪, 福岡, 名古屋, 新潟, 熊本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타이페이, 홍콩, 마닐라 방콕
미국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뉴욕
스리랑카, 바레인, 사우디, 아부다비, 쿠웨이트	콜롬보, 다란, 바레인, 제다, 아부다비, 쿠웨이트
프랑스, 스위스, 독일, 화란	파리, 취리히, 암스테르담프랑크푸르트(화물)
15	23

◇동남아각국항공기취항현황

국　가	수　도	외국항공기	자국기	취항국가(도시)
泰國	방　콕	38	TG	28 (34)
日本	도 오 쿄	36	JAL	31 (52)
싱가폴	—	33	SIA	27 (36)
홍콩	—	29	CPA	15 (22)
필리핀	마 닐 라	26	PAL	19 (22)
말레이지아	콸라룸푸르	20	MAS	17 (21)
印度	자카르타	17	GARUDA	16 (19)
臺灣	타이페이	12	CAL	10 (15)
韓國	서　울	7	KAL	15 (23)

日, 보상금支給도 「두얼굴」

美英·日人 厚待 한국·臺灣차별 심해

日호텔火災

"1人當 2천만엔은 人命경시 發想"유족들

일본東京 뉴저팬호텔화재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은 23일 호텔측이 일본인희생자와 차별을두어 한국및자유중국인 희생자 22명에대한 보상금을 1인당 2천만엔으로 제안한것은 인명경시와 민족차별주의의 발상이라고지적, 유족들이 납득할만한 보상금을 받게해달라는 내용의청원서를 주한일본대사관에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번 참사의 희생자들중에는 전보사·체신부장관 金泰東씨같은 국가적 인물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희생자들도 각회사·단체의 유능한 인재들이어서 국가적 손실도 컸다』고 전제한뒤 호텔측이 일본관계당국의 행정지도를 여러번어기고 방화시설·피난시설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은데다 무책임한 관리운영으로 외국인 단체투숙객의 희생이 컸는데도 미·영국인및 일본인희생자에 대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한국및 자유중국희생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2천만엔씩 지급하려는속셈은 도저히 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

사망자 趙淳씨의 동서이며 유가족대표인 房琦天씨(48)는 趙씨의경우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사업과장으로 월급55만8천원에 보너스를 합치면 월73만여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말하고『호프만식 계산방식으로 대충계산해도 1억6천만원이 나오는데 일화 2천만엔 이라면 반도 채못되는 액수』라면서 일본측의 사후처리 태도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의하면 뉴저팬 호텔측은 지난19일 일본인및 미·영국인에 대한 보상액은 밝히지 않은채 한국·자유중국 유족들에게 일률 2천만엔씩을 제안하고『외부에알리지말아달라』고부탁했었다는것이다.

호텔측은 앞서 사체인수차 일본에간 유족들에게 여비50만엔·향초대 10만엔씩을 지급했으며 연수단을 일본에보냈던 란체스터판매전략연구소의 유족들과는 소실품(燒失品)보상금조로 5백58만엔에 합의한바있다.

한편 자유중국인 희생자유족들도 22일 臺北에서 회합을열고 호텔측이 제시한 보상금을 거부하고 일본인희생자와 동등한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요구한것으로 보도되었다.

濟州행낭 절도범에 단기1년 懲役선고

【濟州=聯】濟州지법 형사단독 梁東錫판사는 23일상오 西歸浦市 中文우체국우편행낭속 현금도난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中文우체국 임시집배원 李모피고인(19·西歸浦市 中文洞)에게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적용, 장기1년6월, 단기1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梁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범행동기가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다 피해액을 피고인및 피고인가족이 전액 변상했기때문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아파트옆 웅덩이放置
동네 7살어린이 溺死

아파트시공업자가 파놓은채 버려둔 아파트단지옆의웅덩이에 어린이가 빠져 숨진지 10여일만에 발견됐다.

22일 하오1시30분께 서울江東區文井洞 주택공사 文井洞아파트단지 뒤편의 깊이2m 직경8m의 타원형웅덩이에서 이 아파트단지 30동102호 林秉兆씨(38·회사원)의 외아들 秀哲군(7)이 익사채로 발견됐다.

秀哲군은 지난11일하오1시께『3층 친구집에 놀러간다』며 집을 나간뒤 행방불명이돼 가족들이 전단을 만들어 뿌리는등 찾아 왔는데 이날 가족들의 요구로 아파트관리사무소측이 양수기를 동원, 3시간30분간에 걸쳐 웅덩이의 물을 퍼내자 웅덩이 바닥에서 秀哲군의 익사체가 발견된것.

이 웅덩이는 아파트시공업체인 東國건설(대표 成道慶·60)이 지난해 공사를 하면서 물을 쓰기위해 팠던것으로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진행중인 현재까지 메우지않고 방치, 지난 9일 하오2시께도 20동301호 李蓋鎬씨(37·회사원)의 장녀 善珠양(7)이 얼음을 지치다빠져 허우적거리다 구조된일이 있다.

美婦人會서 다과회
李順子여사참석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23일 하오 미국婦人會가 美대사관저에서 마련한 韓美修交1백주년기념 다과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눈뒤 미국婦人會사업에 관한 전시사진을 관람했다.

이자리에는 미국婦人會회원과 3府요인부인등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國定교과서 縮小조정
國務회의 檢定 출판資格은 強化

국무회의는 23일 教科用도서에관한 규정을고쳐 현재국정교과서의 대상을 중학교및 실업계高校의 모든 교과서와 人文系高校의 국어·국민윤리·국사교과서,「고교의 국어·도덕·국사와 문교부장관이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서로 한정, 축소조정토록했다.

개정규정은 또 검정도서출판자의 자격요건을 현행의 최근3년간 每年 5종류이상의 도서발행실적이 있는것을 최근3년간 매년10 종류이상발행실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문교부장관은 검정도서 발행자가 다른 발행자와 공동으로 인쇄 발행할수있게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직업훈련공단법시행령을 의결, 훈련공단의 非常勤이사를 기획원등 관계부처3급이상 공무원6명과 근로자 사용자대표및 전문가대표 각각3인이내에서 구성토록했다.

작년 校內사태관련
百여명 懲戒해제
서울大、有期정학·근신등

서울大는 23일 신학기개학을 앞두고 지난 한해동안 교내사태와 관련돼 징계를받은 학생가운데 유기정학·근신·경고처분을 받았던 1백여명에 대해 징계를 해제하기로했다.

서울大는 또 무기정학을받은 50여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경우 지도휴학으로 징계를 완화한것을 검토키로했다.

서울大의 한관계자는 23일 『지난 겨울방학동안 분담지도교수의 가정방문, 학부형의 학교초청, 동문선배들과의 대화등을통해 징계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전의정을 뚜렷이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무기정학을 지도휴학으로 바꾸는것은 대학독자적으로 결정할사안이 아니어서 시간을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무기정학의경우 매학기등록금을 내야하며 군입대가 불가능하나 지도휴학으로 완화되면 등록금을 내지않고 군입대도 가능해 그동안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의 상당수가 지도휴학조치를 학교측에 희망해온것으로 알려졌다.

LA거주 세韓國人
웅담密賣로 벌금刑

【로스앤젤레스23日UPI=聯】한국인으로 보이는3명의 로스앤젤레스시민이 웅담을 불법매매한 혐의로 市법원당국으로부터 1만4천달러의 벌금및 추징금납부명령을 받았다.

이름이 金여보·마이클왕·로버트손등인것으로 알려진 이들 3명은 동양인들이 좋은 보약으로 치는 웅담들을 캘리포니아 북부의 밀렵자들로부터 사들여 웃돈을받고 판 혐의를 받고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수렵법은 곰의 신체중 어느일부라도 사고팔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있다.

朱·李양 抗訴
潤相군 살해

李潤相군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선고받은 朱永炯피고인(29)과 징역10년을 선고받은 공범李모양(18)등 2명이 항소마감일인 23일 1심형량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공범高모양(18)은 항소를 포기했다.

아기버려 溺死
엄마 自殺미수
生活苦·신병悲觀

서울江西경찰서는 23일 신병을비관, 생후4개월된 아들을 개천에 내다버려 숨지게한 金淑子(24·여·서울江西區木洞42의112)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金씨는 지난해11월 장남林光國군을 출산한뒤 후유증을 앓아왔는데 생활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못하는것을 비관, 지난19일하오8시10분께 光國군을 업고나가 서울江西區木洞474 楊花橋밑 安養川에 던져 숨지게 했다.

金씨는 光國군을 安養川에 던진뒤 자신도 지나가던 서울8마4593호 트럭(운전사 李正鎬·38)에 뛰어들어 자살을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李寬 蔚山공과大學長
英제국 名譽훈장받아

李寬蔚山공대학장(사진)이 蔚山공대와 英國각대학간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국관계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英국정부가 주는 英제국명예훈장(OBE章)을 받게된다고 23일 주한영국대사관이 발표했다.

서훈식은 3월5일하오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거행된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西獨 音樂유학 힘들어졌다

외국인規制…語學테스트 거쳐야

서독 음악협회(Deutsche Musikrat)초청으로 2주동안 그곳 국립음악대학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볼수 있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서독에서도 경제불황으로 인한 예술문화계의위축을 느낄수 있었다. 그것이 곧바로 국립음악대학의 外國人학생에게도 영향을 주고있다. 學費가 필요없고月2백불정도의 생활비만 있으면 完備된 시설과 좋은 교수밑에서 공부할수있어 學生들의 天國이라고 알려져있는 서독에는 아시아및 東西의 많은 外國人學生들이 몰려와 전교생의 3분의1정도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外國人學生에대한 規制가 점차 까다로와져 그 수가 줄어들고 이제는 입학시험에 합격하기도, 졸업하기도 어려워졌다.

서독에는 16개 국립음악대학, 12개 종교음악학교, 4개 시립음악학교, 21개 음악 연구과정등 엄청나게 많은 음악교육기관이 있으나 우리나라에 알려진 학교는 몇개뿐이다. 또 학교마다 여러 전공과목이 있으나 한국 학생은 피아노, 성악, 현악정도에 국한되고 작곡, 관악, 음악학, 음악교육, 종교음악, 지휘(오키스트라, 합창)반주, 쳄바로, 타악기등은거의 전무한상태다. 외국유학의 문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音樂學徒들의 서독유학도 늘어날 것이므로 현지에서 보고 느낀점을 적어본다.

서독에서 16개의 國立음악대학은 어디나 평준화되어 있고 학교마다 特性이 있을뿐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학생이 많이 가있는학교(필트음악학교에는 60명이나 가있다)에만 갈것이 아니라 좋은 교수를 찾아서 다른 음악대학을 가도 좋을 것이다. 참고삼아 16개 국립음악대학이 있는 도시를 열거하면 베를린, 데트몰트, 에센, 프랑크푸르트·마인, 프라이부르크, 함부르크, 하노버, 하이델베르크·만하임, 카를스루에, 쾰른, (아헨, 뒤셀도르프, 부페탈포함) 뤼베크, 뮌헨, 자르브뤼켄, 슈투트가르트, 트로싱겐, 뷔르츠부르크등이다.

또한 앞으로는 전공뿐 아니라 독일어 공부에 치중해야 한다. 무슨 연고로 알게된 교수의 초청으로 유학을 갔다가 1년도 못가서 교수를 옮기게 되는일을 많이 본다. 전에는 독일어 한마디 못해도 피아노만 잘치면 入學도되고 卒業도 할수있었으나 요즘엔 外國人學生을 제한하는 방법의 하나로 語學테스트를 하고있다. 獨語를 못하면 入學이 안된다는 생각으로 실기와 마찬가지로 語學공부에도 힘을 기울여야한다. 교수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曺祥鉉 〈漢大교수·音樂協理事長〉

20代연주가·10代발레리나 突風

美 연극계는 연출가時代

30代退潮…세련보다 個性·힘을　음악
技巧 한계에…10代들 頂上대시　무용

음악

「30代연주가는 한물갔다」는 新유행어가 나돌만큼 20代연주가들이 해외악단을 휩쓸고 있다. 이탈리아 태생의 지휘자 리카르도·샤이, 중국인 첼리스트 요요마(馬友友), 카라얀이 키우는 독일인바이올리니스트 안네·소피·무터(18), 선풍적 인기를 일으키는 유고태생의 피아니스트 포골레리치등 오늘날 음악계의 스타는모두 20代이다.

29세에 벌써 5백회의지휘경력을 갖고있는 리카르도·샤이는 올시즌부터 베를린방송교향악단과 런던필의 수석객원지휘자가 되었다. 19세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누보극장에서 마스네의 오페라「베르터」를 지휘하여 데뷔한 그는『힘차고 박진감넘치는 지휘』로 젊은음악팬들을 사로잡고있다.

중국인을 부모로 파리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첼리스트 요요마(26)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높은 젊은음악가이다. 그는 줄리아드 예비학교를 거쳐 하버드大에서 인류학을 전공한 독특한 음악가이기도하다.

포골레리치는 작년도 쇼팽콩쿠르에서 낙선한 바람에 유명해진 괴짜.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그의 박력있는 터치는 타의추종을불허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폰·카라얀이 키우고있는 안네·소피·무터는 13세때 카라얀의 눈에띄어 빛을본 바이얼리니스트. 해외의 음악관계자들은 『20代 젊은 연주가들의 군림은 클래식음악이 귀족적인 취향에서 벗어나 대중화함에따라 젊은 음악팬들이 청중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유럽의 세련된 음악보다는 개성이 뚜렷한 힘있는 연주가들이 부상하는 美國음악계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있다.

연극

미국 연극계는 배우및 극작가가 각광받던 시절이 지나고 연출가들이 크게 주목받고있다. 전위, 실험, 마임, 구조주의 연극등 전위 실험극이 60, 70년대를 휩쓸고지나간뒤『창작 빈곤 시대』라는 자탄이 터져나오면서 고전쪽으로 눈을돌린 연극계는 극작가들대신 유능한 연출가를 잡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제까지 외국에서는 연출가란 幕後어디에선가 서성대면서 배우를 움직이게 하고 劇本을 전개시키는 裏方으로만 생각되었으나 연출가의 중요한 역할은 劇本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 내어 관객들한테 던져주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일부 비평가들은『연출가들이 득세함에따라 하나의 思潮가 창출되기보다는 고전을 자기식으로 재현하는 재현예술이 판치고 있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美「빌리지·보이스」誌가 선정한「미국 연극계를 주름잡는연출가베스트7」은 다음과 같다.

①안드레이·세르반=당년39세로 루마니아人.「벚꽃동산」을 연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그는 매공연마다 무대를 매일 바꾸는 것으로 유명하다.

②로버트·앨런·애커먼=37세로 視覺위주의 연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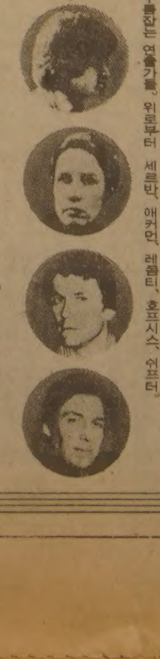
③채·호프시스=31세.「엘리판트·맨」을 연출, 가장 유능한 연출가란 평가를 받고있는 그는「토니賞」「드라마·데스크賞」등 미국의 5대 연극상을 휩쓸었다. 直感的인 작품을 좋아하는 그는 배우선정이 연극성공의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④윌포드·리치=40代인 그는 짜임새가 허술한 극본일수록 훌륭한 연출솜씨를 발휘한다.

⑤피터·마크·쉬프터=31세. 배우들을 가장 극성스럽게 괴롭히는 연출가. 그는 배우를 쉬지 않고 계속 행동하게만드는 코믹물에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있다.

⑥엘리자베드·레콤티=화가, 안무가, 건축가인 그녀는 애커먼처럼 視覺위주의 연출가.

⑦조앤·애칼레이티스=화가이며 연출가로 역시 視覺에 치중하고 있다. 그는『연출은 움직이는 그림이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美연극계를 주름잡는 연출가들. 위로부터 세르반, 애커먼, 레콤티, 호프시스, 쉬프터.

무용

유럽발레계에는10代발레리나 돌풍이 불고있다. 지난2월16일부터 4월4일까지 빈에서 열리고있는 유럽최대의 발레페스티벌「탄즈82」(Tans82)」에서 올해나이 16세인 브리지트·스태들러와 17세인 줄란타·세이프리드가 혜성처럼 나타났기 때문. 발란쉰, 누레예프, 존·누메이에, 지리·킬리안등 발레계의巨匠이나주역들조차『브리지트누구?』『줄란타누구?』라고 궁금해했을만큼 그들은 무명의 신인들이었다. 그들은 현재 모두 빈국립오페라 발레단 단원이다.

이번「탄즈82」에서 스트라빈스키의「페트류쉬카」와 림스키·코르사코프의「세헤라자데」에 각각 솔로 출연, 관객을 열광케한 두 소녀는 유럽제1의 발레리나인 갈리나·파노바(33)를 제치고「세헤라자데」와「페트류쉬카」에 또한번 출연한다. 또한 다음시즌에 스태들러는 유리·그리고로비치 각색의「호두까기인형」에 출연하고 세이프리드는 루돌프·누레예프안무의「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일약솔리스트로 출연하게된다.

이 10代발레리나를 발탁했던 빈국립오페라 발레단 게르하르트·브루너단장은『두사람은 내년에는 솔리스트로서 확고한 기반을 굳히고 20代가되기전에 세계정상급의위치를 굳힐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는 두사람이 긴 목과 다리, 유연한 허리등 완벽한 신체조건과 다양한 레퍼터리에의 빠른 적응력, 작품에 몰두하는열정, 스테미나, 매너등 나무랄데가없다고격찬한다.

세이프리드는 7살부터 스태들러는 9살부터 루드밀라·페트로바지도로 오스트리아 극장연맹이 운영하는 발레학교에서 발레수업을 쌓았다.

【崔成子기자】

◇20代에 세계첼로계의 총아가된 요요마㊨와 그의아내 질.

◇유럽 발레계에「10代돌풍」을 일으킨 발레리나 줄란타·세이프리드.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0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8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한

자동차 매매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67－5605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얼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Big Seven
678 Bloor St. W. ☎530－0523

Mr. 오 선물센타
100 City Centre Dr. Square One Shopping Mall, Miss. ☎ : 275－2187

건축·설계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감독
공사견적,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신용조합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한 인 신 용 조 합
BLOOR ST. W. TOR. ONT. M6G 1L4
☎ : 533－938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 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 PM, 토요일 10AM－6 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 동 양 한 약 상 사 *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보 • 명함 • 청첩장 •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용 대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 : 533－2361～4

流星의 賦 <317>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⑭

뿐만 아니라 바로 그해 6월 대마도의 종의지가 수길의 의도를 막고 간곡히 경고한 바도 있었다.

그랬는데도 조정은 이를 등한히 하고 다만 경상도 일대의 성지수축(城池修築)에 착수했을 뿐이다.

게다가 군졸(軍卒)은 극단할만큼 문란해 있었다. 진군(鎭軍)들은 鎭將(진장)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예사로 결진(結陣)하여 항의했다. 결진이란 일종의 동맹파업 같은 것이다.

경상감사 김수(金睟)가 도임하여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수축하려고 하자 백성들의 원성이 일어났다.

『태평연월에 왜 백성을 괴롭히느냐』

는 것이다.

종래 무비(武備)를 굳게 하려고만 하면 백성들의 항의가 있었고, 항의가 있기만 하면 조정내에 이에 호응하는 자가 있어 당초의 명령을 거둬들이는 예가 빈번했다. 이번의 사건도 그런 선에서 좋은 것이었다.

지방관이 이런 항의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행정에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의 부정이 폭로될까 보아 조정의 시책을 강행하느니보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편이 수월했다. 그리고는 자기와 결탁되어 있는 내관(內官)들에게 작용해서 민폐운운을 구실로 정책을 중단케 하곤 했다.

한마디로 말해 당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이것이 또한 일본의 침략을 유발케 한 최대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나고야의 행영에서 수길이 그의 막료들에게 물은 적이 있다.

『조선의 최근동정은 어떤가』

『근래 조선에서 돌아온 선원의 말에 의하면 부산포의 성을 수리한다고 한때 사람들이 떠들썩 한것같더니 그만 두었다는 얘깁니다』

『왜 그만 두었을까?』

『문신과 무신 사이에 의논이 맞지 않는듯 하옵니다』

『그 밖에 해안에 무슨 방비 같은 건 없는가?』

『눈을 닦고 보아도 그런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그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아마 모를것이옵니다』

『그것은 왜? 대마도나 여기에 드나 드는 조선사람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중엔 밀고하는 놈도 있을 것 아닌가』

『그건 걱정 없읍니다. 우리편의 사정을 알렸다간 거짓 말을 꾸며 인심을 소란케 한다는 죄로 곤장을 맞게 마련이니 설혹 우리 편의 사정을 알았다고 해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묘한 나라도 다 있군』

『그러기에 조선의 정벌은 어린애의 팔을 비트는거나 다름없다고 하잖습니까』

수길은 조선의 평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치고 대명(大明)에 들어갈 꿈만 꾸게 되었다.

『북경(北京)에 들어갈 때 입을 옷으론 무엇이 좋을까』

『그때 쓸 관은 무엇이 좋을까』

『천자(天子)와 같이 입성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말이 있은 다음엔 대명국(大明國)을 분할하여 공로자에게 상여를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 또한 세밀했다.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 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수 있어야함.
☎ : 535-2798 233-9454
781-9581(저녁)

도너츠 샾 급매(토론토지역에서 25마일 떨어진 지역)
주매상 : $3,000. 아스킹 : $85,000
☎ : 783-5454

경험있는 주말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 : 923-4354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 매니저 또는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식자기술 배우실분 구합니다.
☎ : 533-2364(미스.박)

입주하셔서 두어린아이(2년, 1년) 보아주실분 구함. 직장부부.
☎266-0801, 751-3189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Full Time)
☎531-2689

구 직

가게등 각종사업체 운영해드림. 수퍼마켓, 무역회사 부동산업 소유 운영했음. 캐나다에서 대학졸업 신원확실, 성실, 입주가능 ☎449-1913(오전11~2시)

매매및 양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George town
○작년도 매상 $270,000
○로타리오 년 $8,000(순이익)
○공중전화 년 $600
좋은 리스, 렌트 600불
☎ 1-877 6463 Mr. 김 883-4550 김영창

드라이 크리닝
①년매상 : $160,000(3베드룸 아파트 포함)
②년매상 : $127,000(리스가 오래됨)
③년매상 : $160,000(오렌지·빌 지역)
아스킹 : $75,000

Smoke Shop (주5일 Open)
주매상 : $14,000
순수익 : 년 $70,000
☎ : 275-5555(데이브·랄)
Export Business, Realtor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기막힌 투자전망 좋은리스
햄버거 샾과 도너츠 샾(오샤와지역)
☎ : (1)~668-5868(B), (1)~668-2484(R)
Mr. Charles B. Rycraft
D. W. Mcquay Realter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렌트 : $515 (전기포함)
☎ : 694-7848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이익높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위치 : Queen St. E.
아스킹 : $129,000 + 스탁
9.5% First Mortgage, 1994
☎ : 461-0225(Peter Tong)
Atwood Hou Real Estate LTD.

세탁물에다는 표를팝니다(1~8번)
노란색(Dry & Laundry용)
오후4시~8시반 ☎ : 742-2092(Mr. Kang)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20,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그로서리 포함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 : 844-6741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사무실·점포 렌트

DUPONT + DOVERCOURT
사무실 렌트합니다.
(300sq. ft. 의 사무실과 500sq. ft. Reception Space가 있음) 한국일보사내 2층.
문의처 : 533-2364 미스 박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매매 부동산

황용현 부동산
☎ : 361-0880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A.E.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엽,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 741-7829(김조자)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지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식 품 점

고 려 식 품 ☎ : 531-2242
680 Bloor St. W. Tor.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한 국 식 품
본 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서 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동 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합니다.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새 한 칼 라 현 상 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828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진참동 가구세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 메뉴 : 초밥, 튀김덮밥, 오뎅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오후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운전학교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양 장 점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801(B), 252-2963(R) MR. 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